

12001772

# 그림으로 본 농업통계

②

농가경제편

# 목 차

## I. 농가경제 현황 / 6

## II. 농가소득 / 9

- 연도별 농가소득 / 10
-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 11
- 소득계층별 농가분포 / 12
- 농가소득 내역별 분포 / 13
- 연도별 농업소득 / 14
-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 15
- 연도별 농업조수입 / 16
- 경지규모별 농업조수입 / 17
- 농업조수입 품목별 분포 / 18
- 연도별 미곡조수입 / 19
- 연도별 채소조수입 / 20
- 연도별 과수조수입 / 21
- 연도별 축산조수입 / 22
- 연도별 농업경영비 / 23
- 경지규모별 농업경영비 / 24
- 농업경영비 내역별 분포 / 25
- 농업자재비 내역별 분포 / 26
- 연도별 농업노임 / 27
- 연도별 임차료 / 28
- 연도별 농외소득 / 29
-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 30
- 농외소득 내역별 분포 / 31
- 겸업소득 내역별 분포 / 32
- 사업이외수입 내역별 분포 / 33
- 연도별 이전수입 / 34
- 경지규모별 이전수입 / 35
- 이전수입 내역별 분포 / 36
- 연도별 조세공과금 / 37
- 연도별 가처분소득 / 38



---

### III. 농가지출(가계비) / 39

- 연도별 가계비 / 40
- 경지규모별 가계비 / 41
- 가계비 내역별 분포 / 42
- 가계집비 내역별 분포 / 43
- 연도별 음식물비 / 44
- 연도별 외식비 / 45
- 연도별 교제증여비 / 46
- 연도별 관혼상제비 / 47
- 연도별 교육비 / 48
- 연도별 보건의료비 / 49
- 연도별 농가 경제잉여 / 50
- 경지규모별 경제잉여 / 51
- 농가 자동차 보유 / 52
- 농가 컴퓨터 보유 / 53
- 농가 전자제품 보유 / 54

### IV. 농가자산 / 57

- 연도별 농가자산 / 58
- 경지규모별 농가자산 / 59
- 농가자산 내역별 분포 / 60
- 연도별 고정자산 / 61
- 고정자산 내역별 분포 / 62
- 연도별 유동자산 / 63
- 연도별 유통자산 / 64
- 유통자산 내역별 분포 / 65
- 연도별 예·저금 현황 / 66

### V. 농가부채 / 67

- 연도별 농가부채 / 68
- 차입처별 농가부채 / 69
- 경지규모별 부채 현황 / 70
-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 71
- 농가부채 용도별 분포 / 72
- 생산성부채 용도별 분포 / 73
- 가계성부채 용도별 분포 / 74

# 1. 농가경제 현황

## 가. 호당평균소득은 21,803천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우리나라 농가경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농가살림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3천1백4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95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평균소득은 21,803천원으로 5년전인 '90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은 수치는 도시근로자가구소득 22,933천원에 비해 1,130천원이 적은 95.1% 수준이지만, 소득중 조세공과금과 가계비 지출을 뺀 경제잉여는 6,299천원으로 농가가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275천원(4.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가의 예금·저금액도 지난 5년사이 3.7배, 전년에 비해서는 35.8% 늘어난 15,403천원으로 조사되어 부채규모 9,163천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전업화의 진전에 따라 고소득농가도 계속 증가, 지난 한해동안 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가의 비중이 전체농가의 21.9%로 '94년의 17.5%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 가. 특종 농업소득의 비중은 줄어듦고 농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

농가소득 21,803천원중 농업소득이 10,469천원으로 48.0%, 농외소득은 6,931천원으로 31.8%를 차지했으며, 외부에서 송금되는 이전수입은 4,403천원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 농가소득 구조가 농업소득 50.8%, 농외소득 30.5%, 이전수입 18.7%임을 감안할 때 농외소득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전인 '90년과 비교하면 농업소득 비중은 8.8% 낮아진 반면 농외소득은 6.0%나 늘어났습니다.

한편, 농업주수입중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5년전보다 14.2%, 전년보다는 2.5%가 줄어든 반면, 축산이 24.9%, 채소가 21.2%, 과수가 9.6%를 차지하고 있어 재배작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계비중에서 교제증여비,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음식물비와 관혼상제비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농촌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교제증여비와 교통통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숙비 및 등록금 인상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진료기회 확대와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보건의료비 지출도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생활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농가의 편의용품 보유도 증가. 칼라TV·냉장고·전화·가스레인지는 모든 농가가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는 10가구당 3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는 100농가당 12농가가 보유하고 있어 농촌에도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농가부채는 전년에 비해 16.2% 늘었으나 대부분 생산성 확대를 위해 투자되어

농가부채는 9,16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2%가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이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농작물 흉작이나 가격파동 등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어촌 투자를 크게 늘린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가운데 영농규모 확대나 영농시설·영농자재 구입을 위해 투자한 생산성부채가 80.0%,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비율이 91.3%로 부채구조가 건전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가중 부채가 하나도 없는 가구는 전년의 18.6%에서 19.5%로 높아졌습니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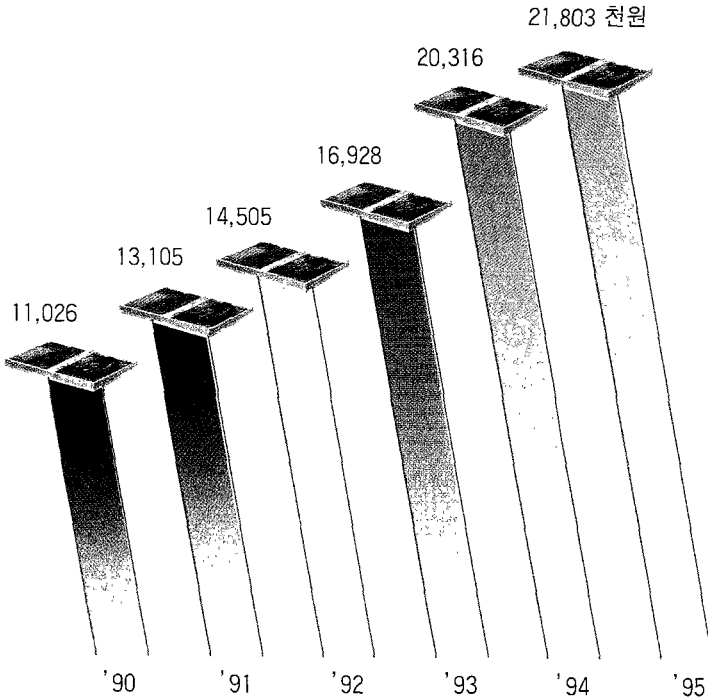
## II. 농가소득

- 연도별 농가소득
-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 소득계층별 농가분포
- 농가소득 내역별 분포
- 연도별 농업소득
-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 연도별 농업조수입
- 경지규모별 농업조수입
- 농업조수입 품목별 분포
- 연도별 다과조수입
- 연도별 채소조수입
- 연도별 과수조수입
- 연도별 축산조수입
- 연도별 농업경영비
- 경지규모별 농업경영비
- 농업경영비 내역별 분포
- 농업자재비 내역별 분포
- 연도별 농업노임
- 연도별 임차료
- 연도별 농외소득
-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 농외소득 내역별 분포
- 겸업소득 내역별 분포
- 사업이의수입 내역별 분포
- 연도별 이전수입
- 경지규모별 이전수입
- 이전수입 내역별 분포
- 연도별 조세공과금
- 연도별 가처분소득

## ■ 연도별 농가소득

### 지난해 농가소득은 21,803천원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평균소득은 21,803천원으로 '94년의 20,316천원에 비해 7.3%가 증가하였으며, 5년전인 '90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2,933천원에 비해 1,130천원이 적은 95.1% 수준으로 농가도 도시근로자 가구에 못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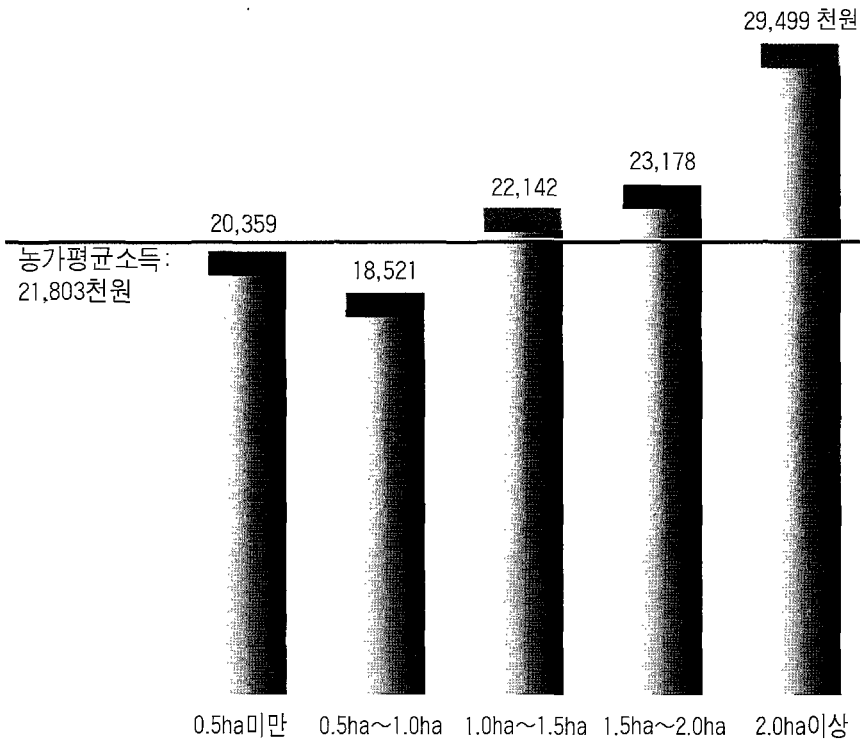




## ■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 경지규모 2ha이상의 농가는 약 3천만원 수준의 높은 소득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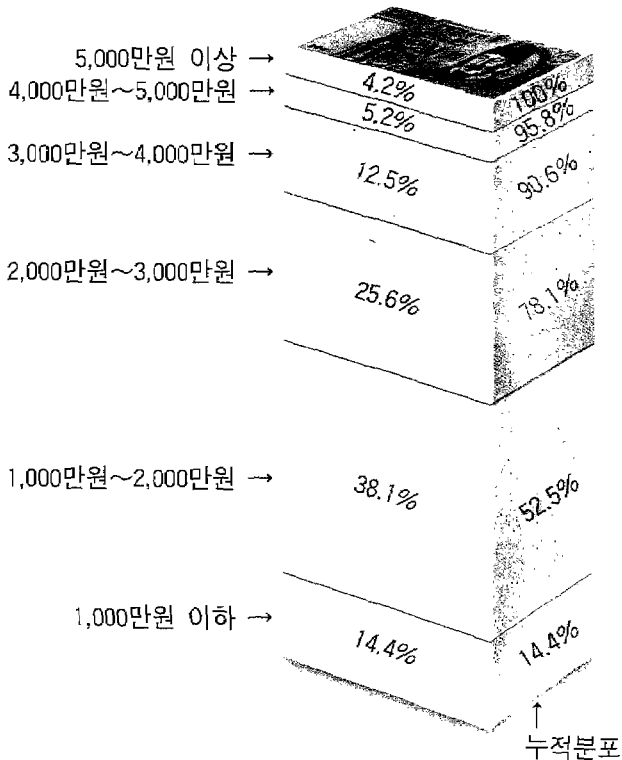
농가소득을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1ha미만의 영세농가는 19,440천원으로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1ha이상 농가는 평균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ha이상의 대규모 경작농가는 약 30,000천원 수준의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 소득계층별 농가분포

### 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농가가 전체농가의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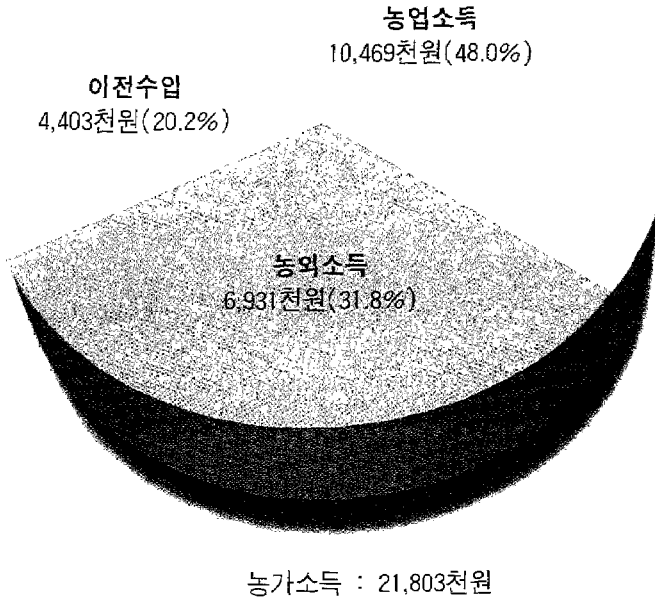
연간 소득이 10,000천원 이하인 농가는 전체농가의 약 14.4%로 전년도에 비해 약 2%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30,000천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94년의 17.5%에서 지난해에는 21.9%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 ■ 농가소득 내역별 분포

### 농외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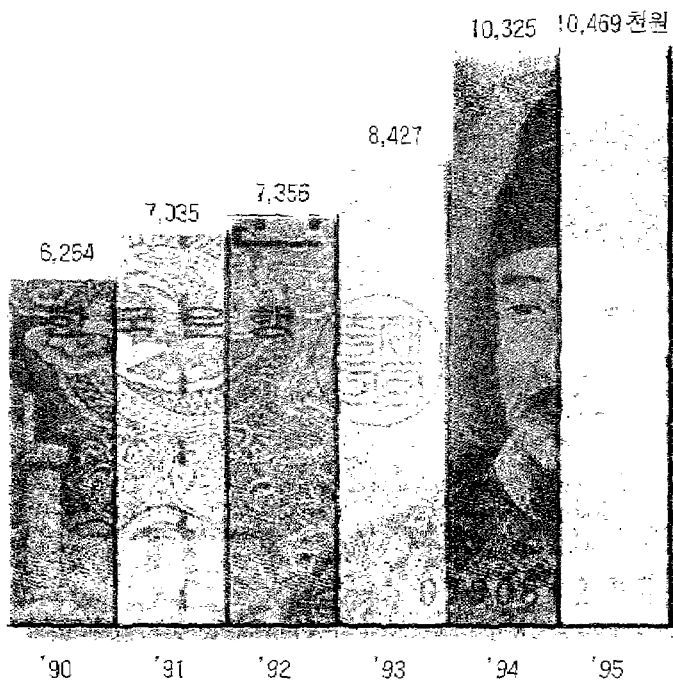
농가소득중에서 농업소득은 쌀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4% 증가에 그친 반면,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8.0%로 줄어든 반면, 농외소득은 31.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농업소득

### 물경산량 감소와 출하가 가격하락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선형세 정세되고 있어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쌀생산량 감소와 사과·복숭아·양파·마늘 등의 출하가 가격하락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10,469천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94년의 50.8%에서 '95년에는 48.0%로 줄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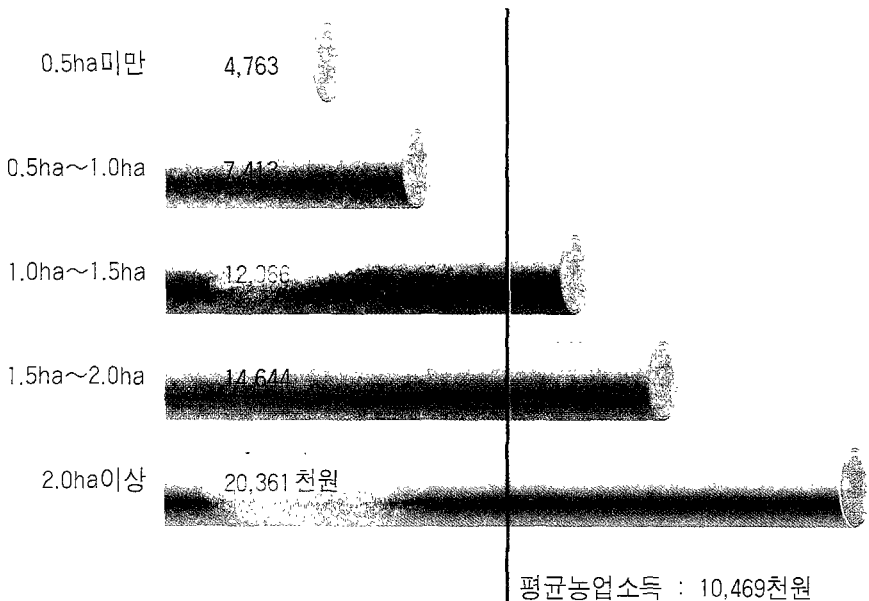


※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명비를 뺀 것으로 농가가 일년동안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함

## ■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 경지규모 2ha 이상의 농가는 평균소득의 약 2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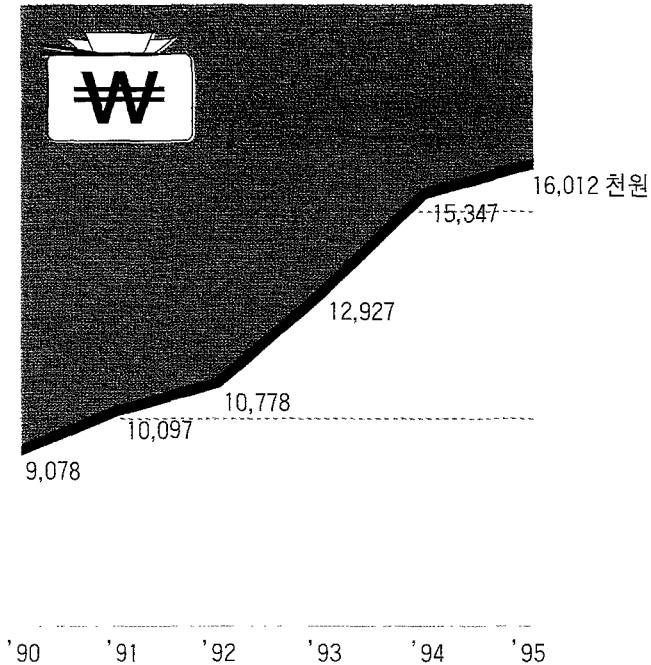
농업소득은 경지규모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ha미만 농가는 평균농업소득의 약 60%에 불과한 6,088천원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2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평균농업소득의 2배에 달하는 20,361천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 연도별 농업조수입

### 농가가 일년동안 농업경영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은 평균 16백만원선

지난해 농가가 농업경영을 통해 1년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은 16,012천원으로 '94년에 비해 4.3%가 늘어났습니다. 농업조수입은 '90년대 들어 매년 10%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여왔으나 지난해에는 미국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4.3%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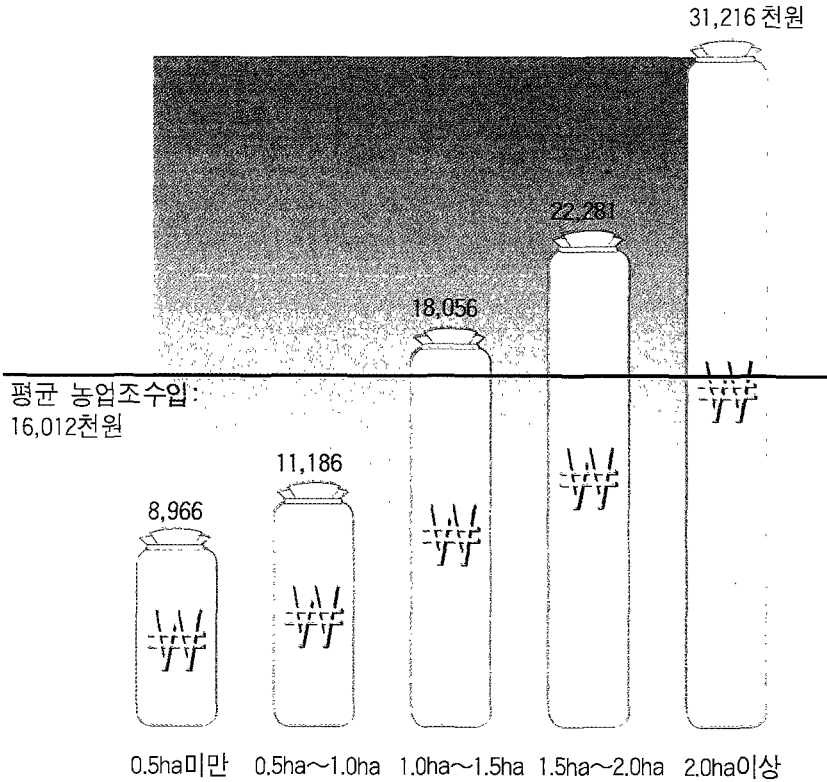


※ 농업조수입 : 농가가 일년동안 농업을 경영한 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 농산물 판매수입, 현물지출 평가액(지대, 노임등), 자가생산 농산물의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 증식액, 미처분 농산물 재고 증감액을 합계한 총액임

## ■ 경지규모별 농업조수입

### 2ha이상의 대규모농가는 연간 31백만원이 넘는 높은 조수입을 올려

농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농업조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ha이상을 경작하는 대규모농가는 조수입에 있어서도 연간 3,100천원이 넘는 높은 조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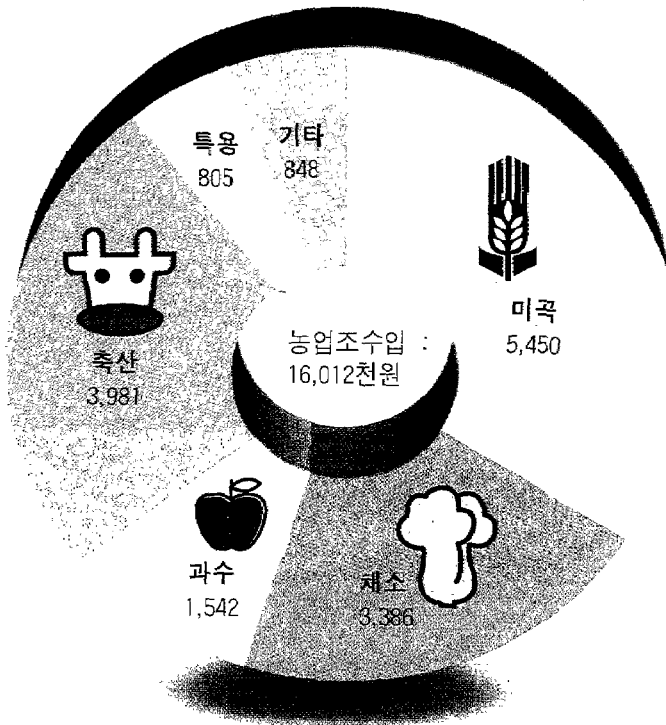


## ■ 농업조수입 품목별 분포

### 농업조수입중 미곡의 비중은 줄고, 축산 채소 비중 크게 늘어

농업조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곡이 5,450천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이 3,981천원으로 25%, 채소가 3,386천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조수입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반면, 축산·채소 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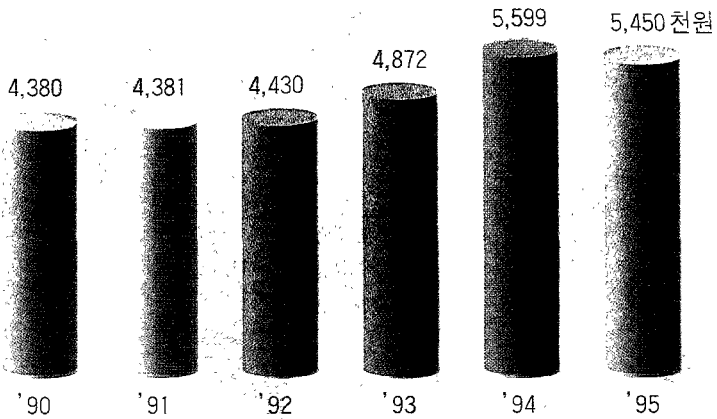




## ■ 연도별 미국조수입

### 미국조수입은 재배면적감소에 이상기온 겹쳐 전년 비해 14만원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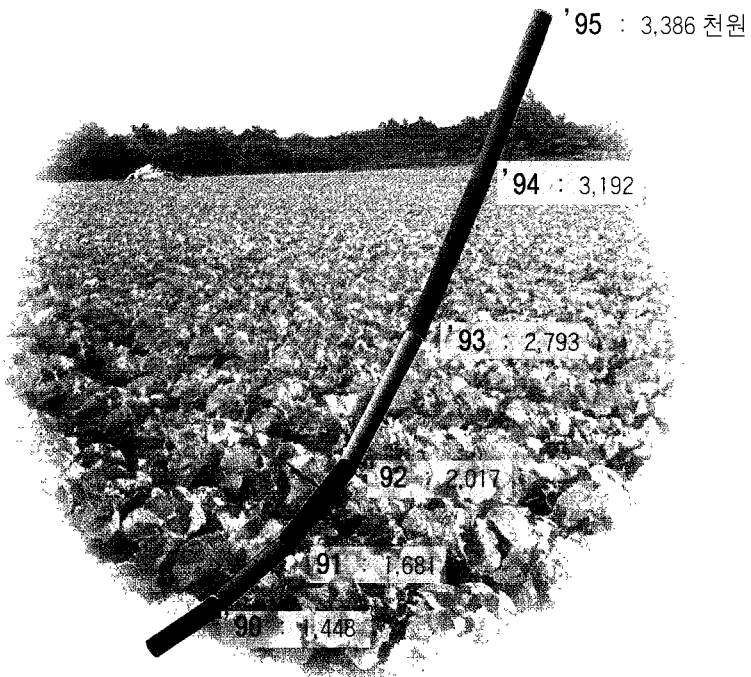
농업조수입중 미국은 한해등으로 생산량이 감소, 전년보다 140천원이 적은 5,450천원의 조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미국조수입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재배면적 감소에다 이상기온까지 겹쳐 처음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 연도별 채소조수입

### 채소조수입은 3,386천원으로 '9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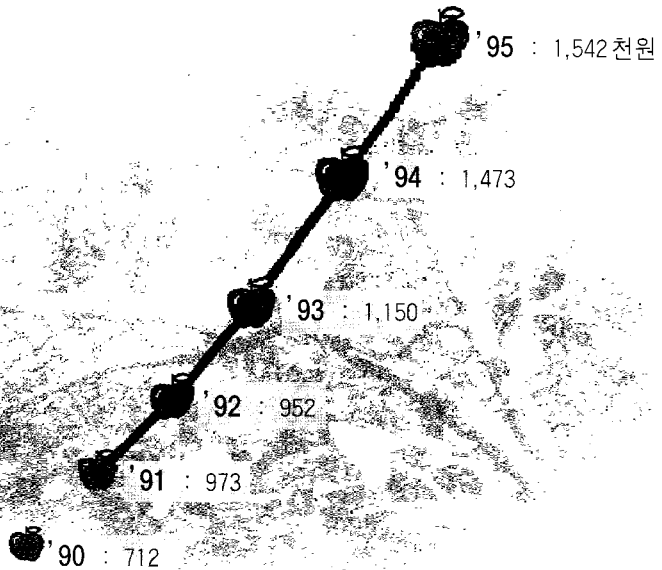
농업조수입중 채소조수입은 3,386천원을 기록, 전년대비 6%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업조수입중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지난해에는 전체 농업조수입의 21%를 차지하였습니다.



## ■ 연도별 과수조수입

### 과수조수입은 1,542천 원으로 '94년에 비해 5%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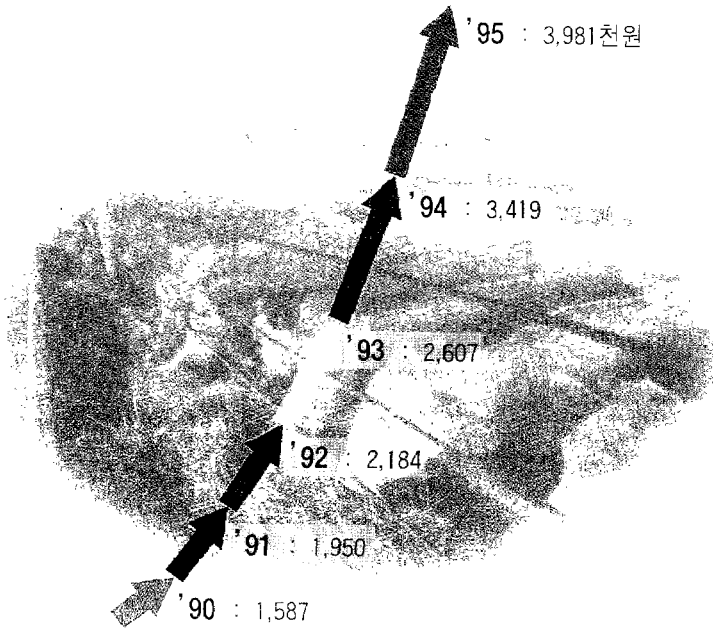
지난해 과수경영을 통해 능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1헥타당 평균 1,542천원으로 전년대비 5%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는 지난 '90년의 712천원에 비해 2배가 넘게 성장,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축산조수입

### '90년대 들어 연평균 20%가 넘는 높은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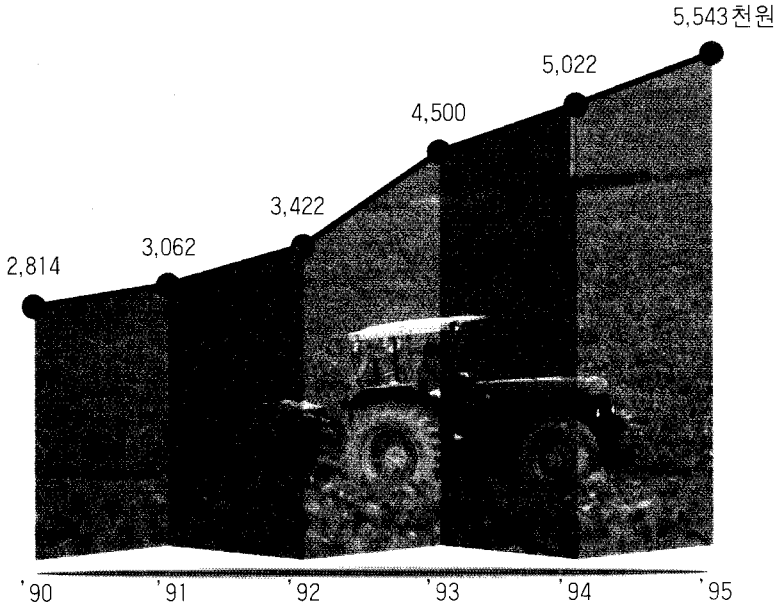
지난해 축산경영을 통해 농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1농가당 평균 3,98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6%나 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들어 농작물 조수입이 주춤한 반면, 축산은 연평균 20.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농촌의 새로운 주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농업경영비

### 지난해 농가평균 5,543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0% 늘어나

지난 한해동안 농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이 늘어난 만큼, 농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농가평균 농업경영비는 5,54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늘었으며, 농업조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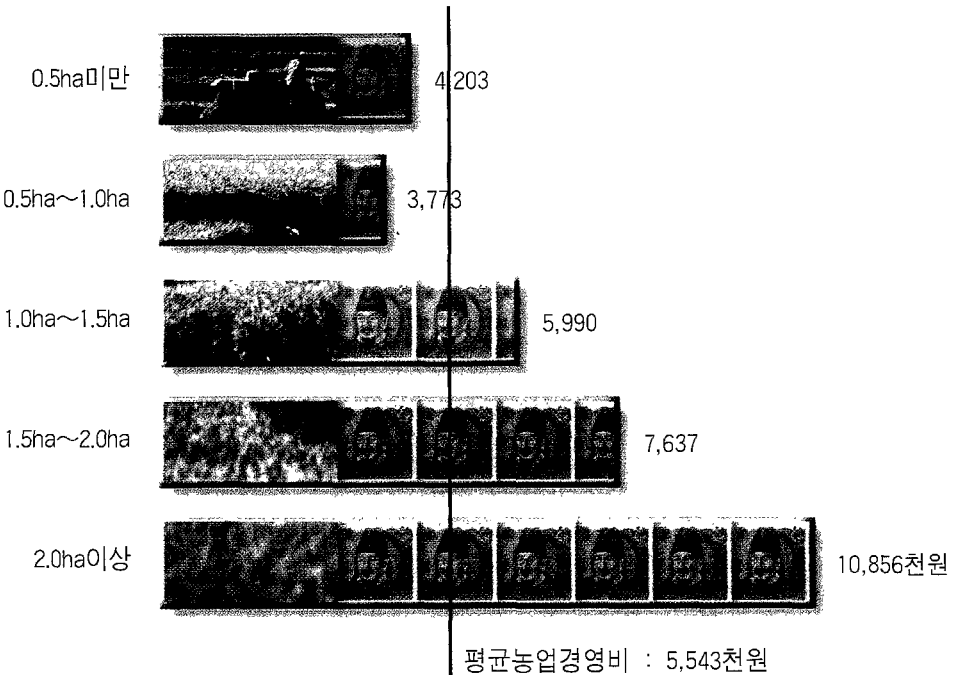


※ 농업경영비 : 농업조수입을 얻기 위해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으로 농업지출 현금, 농업지출 현물평가액(지대, 노임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농업 생산자재 재고 증감액을 합산한 총액. 단 자가생산한 농산물중 농업경영에 재투입한 사료, 퇴비 등의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

## ■ 경지규모별 농업경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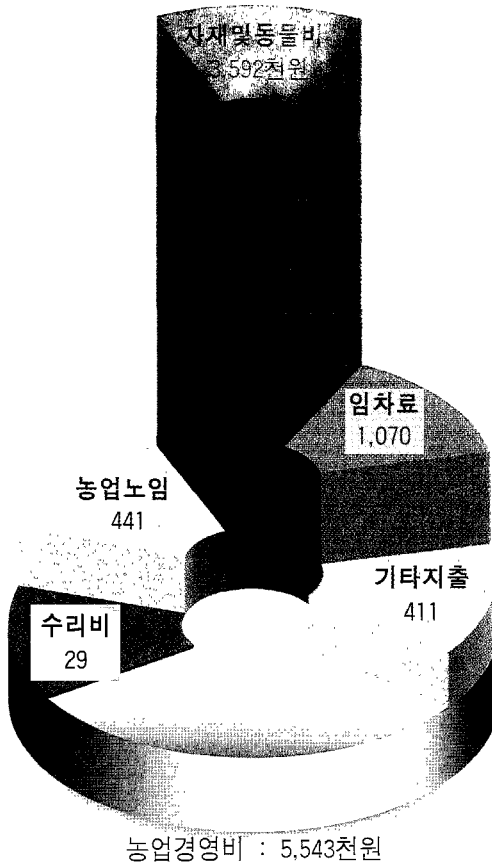
### 경지규모가 크면 클수록 농업경영비 지출도 그만큼 많아

경지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농업경영비도 그만큼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1ha~1.5ha를 경작하는 농가가 농가평균인 5,543천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ha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평균 10,856천원을 농업경영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농업경영비 중에서는 농업자재구입(축산의 경우 새끼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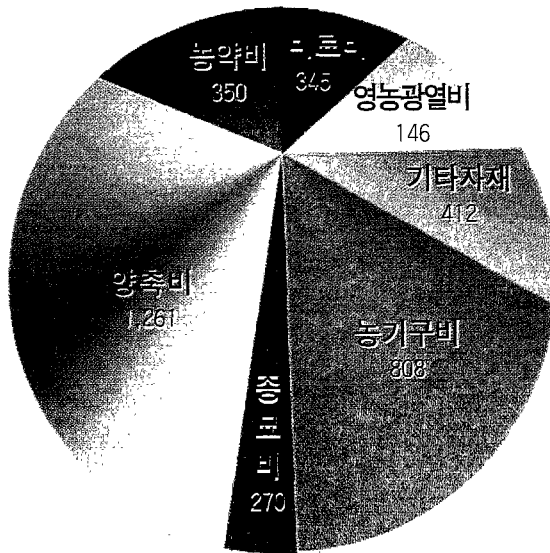
농업경영비 중에서는 농업자재구입(축산의 경우 새끼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3,592천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농지 등의 임차료(1,070천원), 노임지급(441천원)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농업자재비 내역별 분포

### 축산을 제외하면 농기구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 지출

농업자재비(축산 포함) 중에서는 양축에 필요한 비용, 즉 동물 및 사료구입비가 1,261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산을 제외하고는 농기구비가 80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약비와 비료비가 350천원, 345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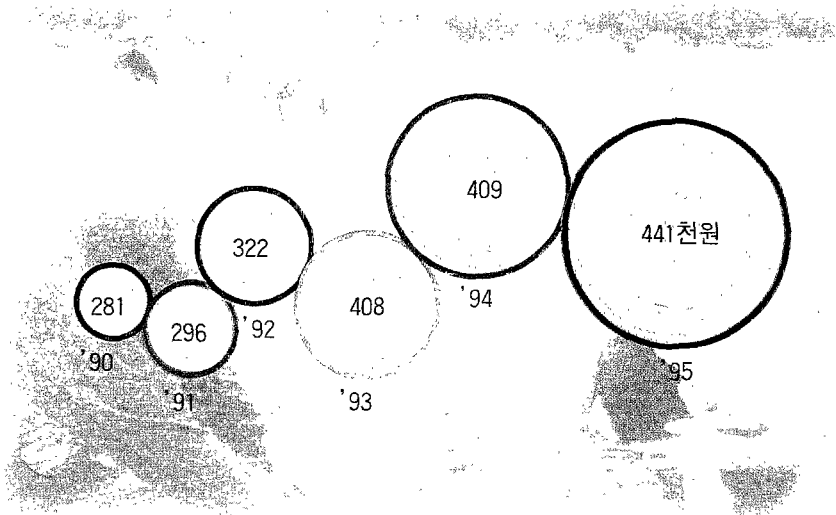
농업자재비 : 3,592천원



## ■ 연도별 농업노임

### 임금상승 등으로 농가의 농업노임 지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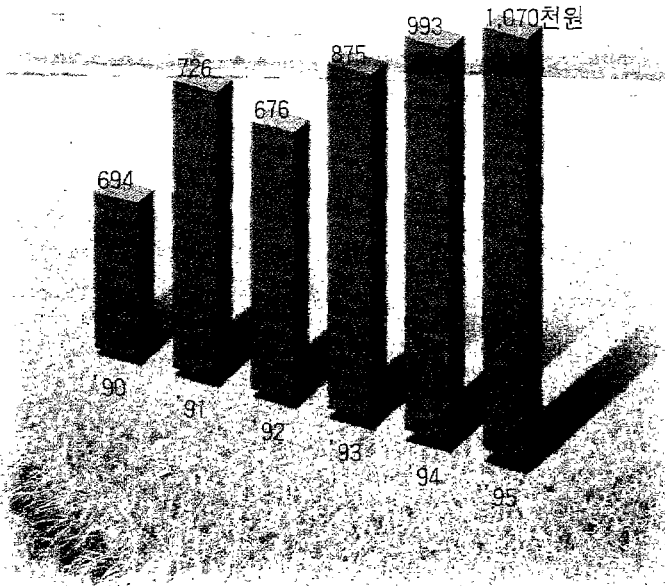
농업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임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의 농업노임 지출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가 농업노임으로 지출한 비용은 441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8%가 증가하였습니다.



## ■ 연도별 임차료

### 임차료 지출은 최근들어 10%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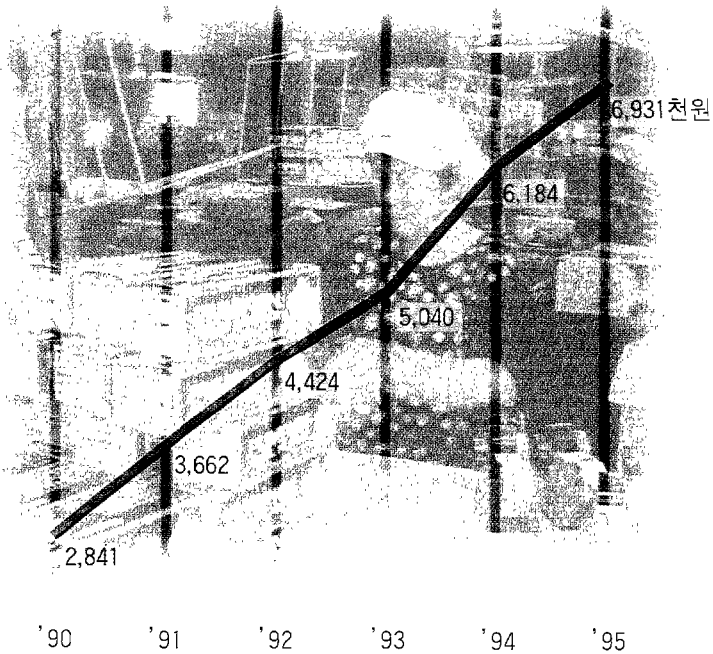
농지임차 등에 따른 농가의 임차료 지출은 '90년대 초에는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92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쌀값상승 등으로 다시 10%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연도별 농외소득

### 농외소득원 확충 등에 힘입어 농외소득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농공단지, 특산단지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확충에 따라 농가의 농외소득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 농외소득은 6,931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2%가 늘어 났으며 '90년대 들어 연평균 20%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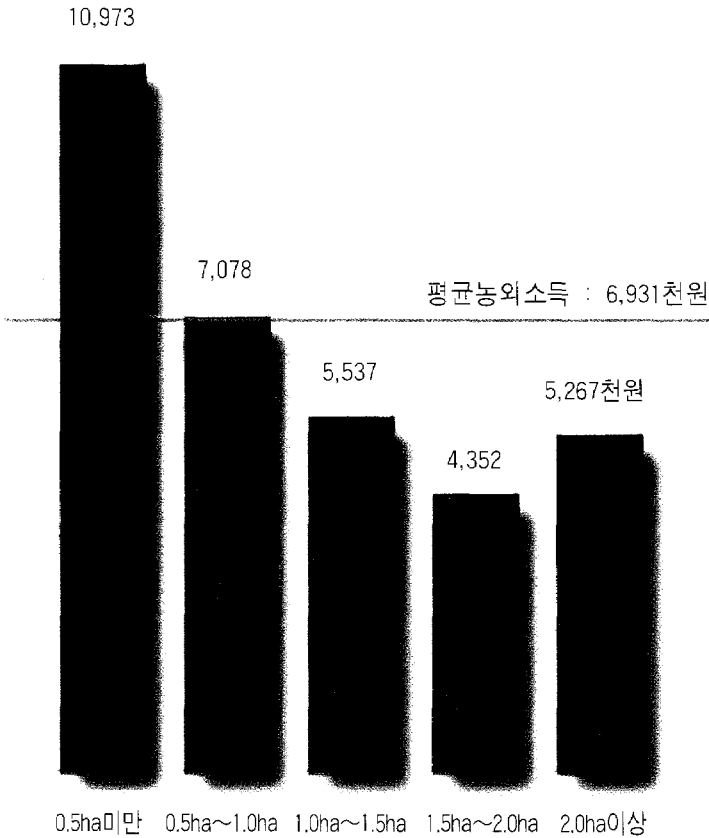


※ 농외소득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과 이전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겸업소득과 사업이외 수입의 합계금액

## ■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 경지규모가 적은 소규모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농외소득을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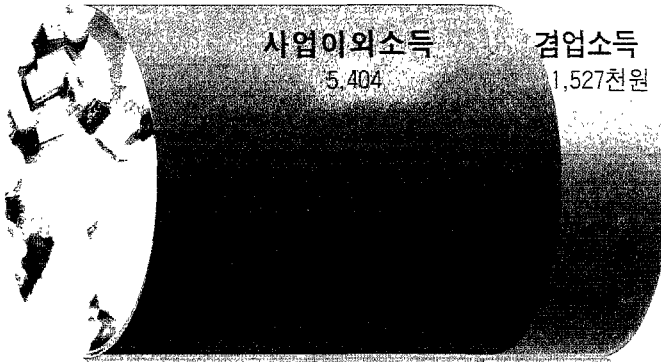
농외소득을 경지규모에 따라 비교해보면, 경지규모가 적어 농업소득이 미미한 소규모 경작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ha이상을 경작하는 대규모농가에서도 평균 농외소득의 76%에 달하는 5,267천원을 기록, 농한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 농외소득 내역별 분포

### 농외소득 6,931천원의 78%가 사업외소득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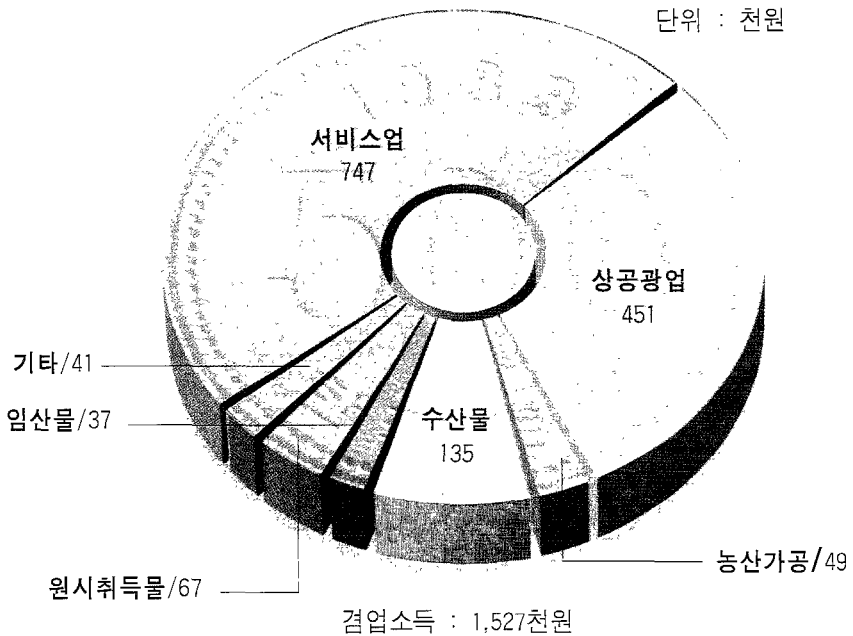
농가가 올린 농외소득 6,931천원중 78%인 5,404천원이 농업이나 타산업에 고용되어 얻은 노임이나 급료·임대료 등 사업외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농업외에 농산가공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사업을 병행하여 얻은 겸업소득은 전체 농외소득의 22%인 1,52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외소득 : 6,931천원

## 겸업소득의 78%가 서비스업이나 상공광업의 경영에 따른 소득으로 나타

농가가 농업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여 올린 겸업소득 중에서는 서비스업이나 상공광업을 겸업하여 올린 소득이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농수산물가공업 육성에 따라 수산물이나 농산가공업의 경영에 따른 겸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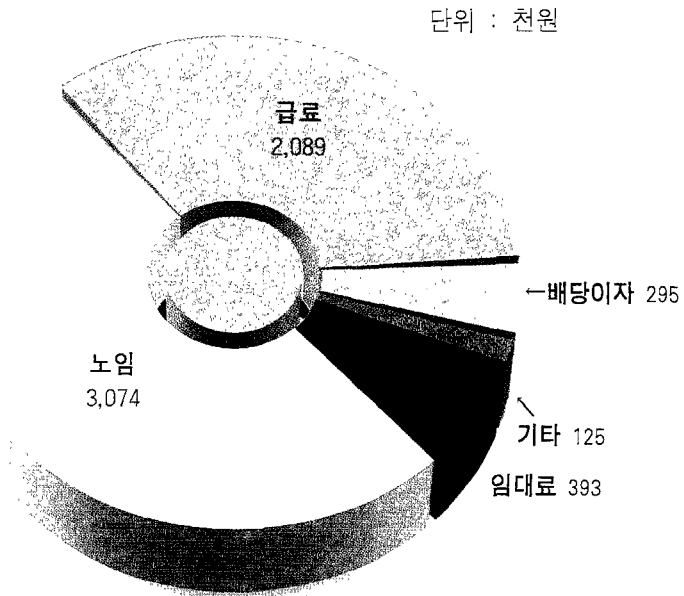


※겸업소득 : 겸업소득은 농가가 농업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 즉 임업, 수산업, 농산가공업, 상공광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농가의 농외 사업활동의 성과를 말함

## ■ 사업이외수입 내역별 분포

### 노임이나 급료수입이 전체의 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사업이외수입 중에서는 노동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이나 타산업에 취업함으로써 얻는 급료 수입이 전체의 약 86%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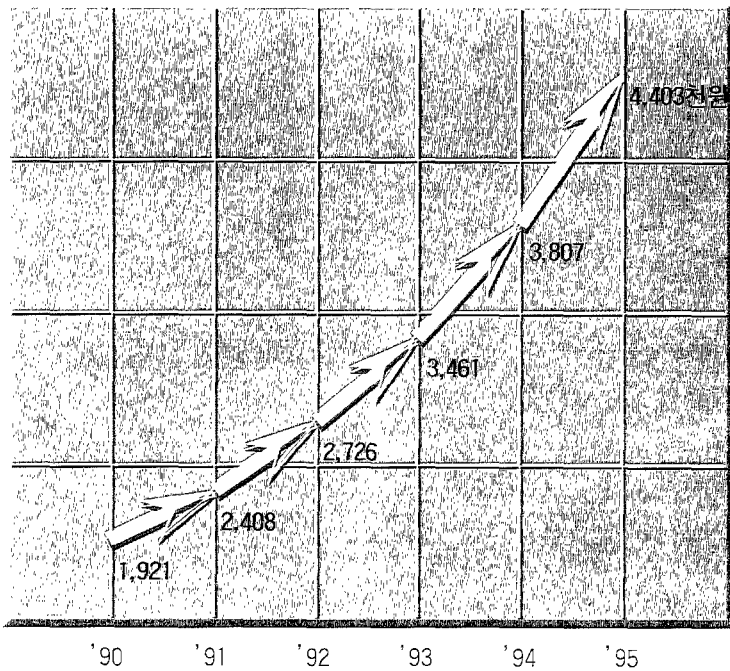
사업이외수입 : 5,976천원

※사업이외수입 : 농업인이 농업이나 타산업에 고용되어 얻은 노임 및 급료수입, 임대료, 배당금, 이자, 기계제품 등을 매각하여 얻은 가사잡수입을 통틀어 사업이외수입이라 함

## ■ 연도별 이전수입

### 농가의 경제활동의 소득인 이전수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출타가족의 송금이나 축·조의금 수입 등 경제활동의 소득인 이전수입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당 이전수입은 4,403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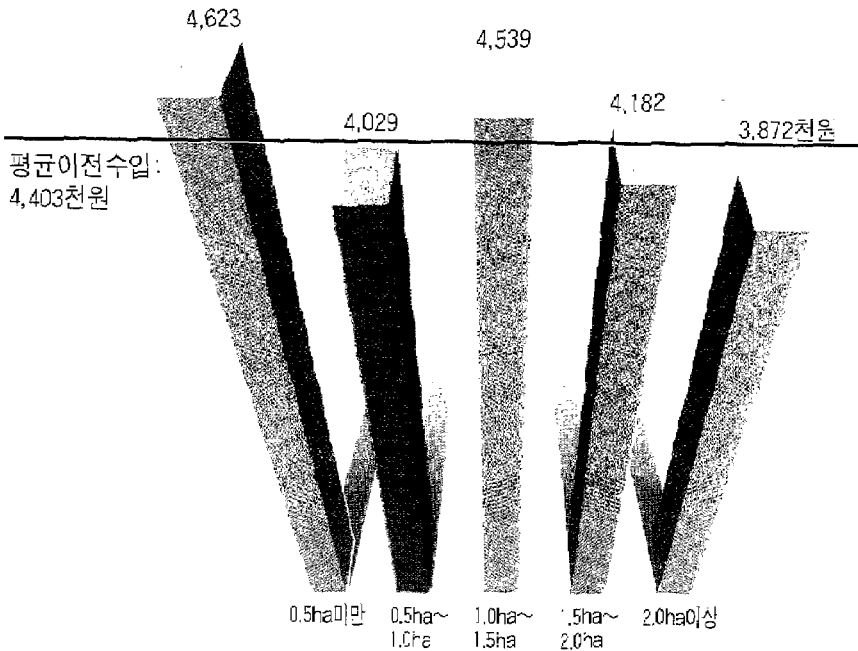
※이전수입 : 농가의 경제활동의 수입으로 각종 사계금 수입, 출타가족이 본가에 송금한 송금 보조, 축·조의금, 타인으로부터의 보조금, 퇴직일시금 등이 포함됨



## ■ 경지규모별 이전수입

### 0.5ha 미만의 소규모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전수입을 기록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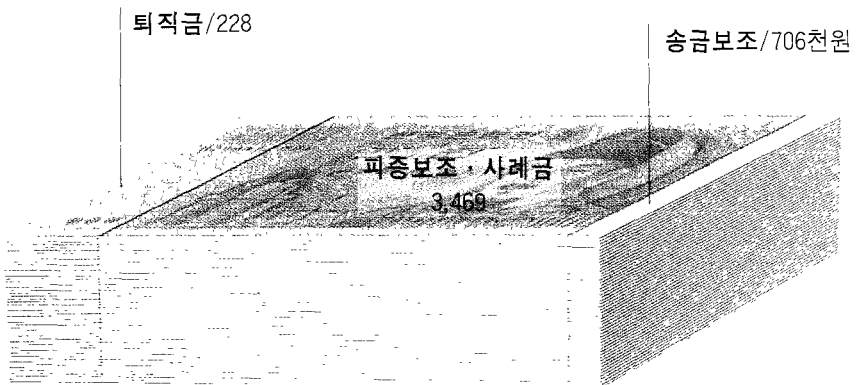
농가의 이전수입을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0.5ha미만의 소규모농가가 4,623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2ha이상의 농가는 3,872천원으로 적어 영세농일수록 이전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이전수입 내역별 분포

### 피증보조금과 사례금수입이 이전수입의 79%를 차지

이전수입 중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보조금 등 피증보조금과 사례금이 3,469천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타가족의 송금에 의한 송금보조는 농가당 706천원으로 전체 이전수입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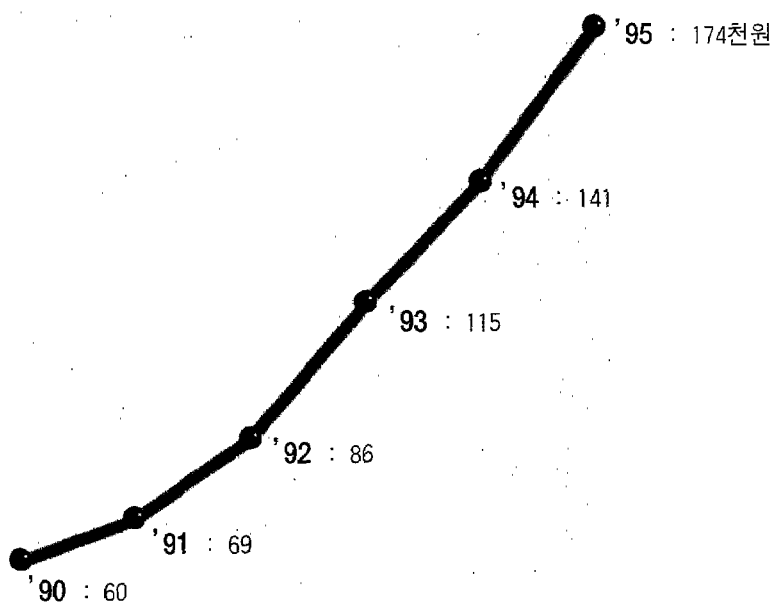


이전수입 : 4,403천원

## ■ 연도별 조세공과금

### 한농가가 1년동안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은 평균 17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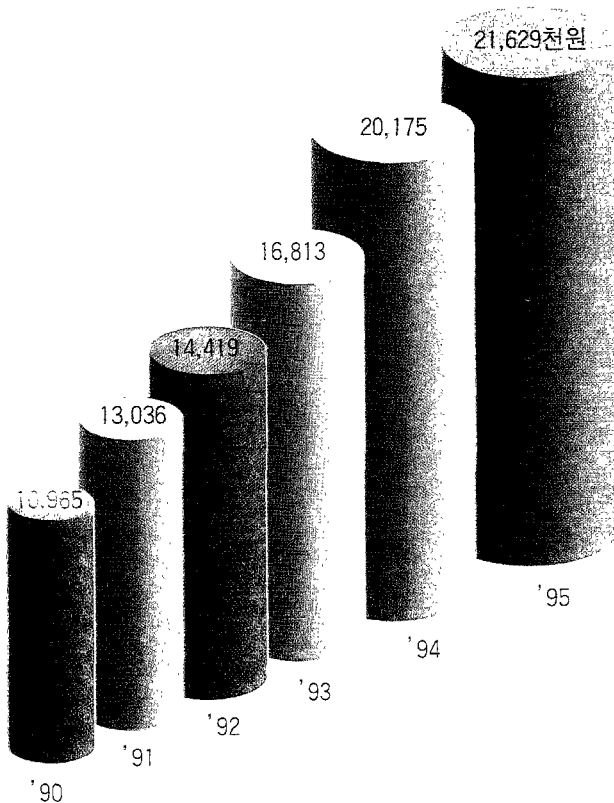
농가가 1년동안 국가에 내는 각종 조세공과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해 평균 174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94년의 141천원에 비해 23%가 증가한 것으로 소득향상에 따라 각종 조세공과금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조세공과금 : 소득세 · 교육세 · 상속세 등 국세와 농지세 · 재산세 · 주민세 · 도축세 등의 지방세 등 일체의 세금 합계액

## 농가의 가치분소득은 21,629천원으로 농가소득의 99.2%

농가소득에서 각종 조세공과금을 제한 가치분소득은 21,629천원으로 농가소득의 9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 농가당 1년 소득의 약 0.8%를 조세공과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분소득 : 농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제부담금을 제한 잔액으로 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함.

# III. 농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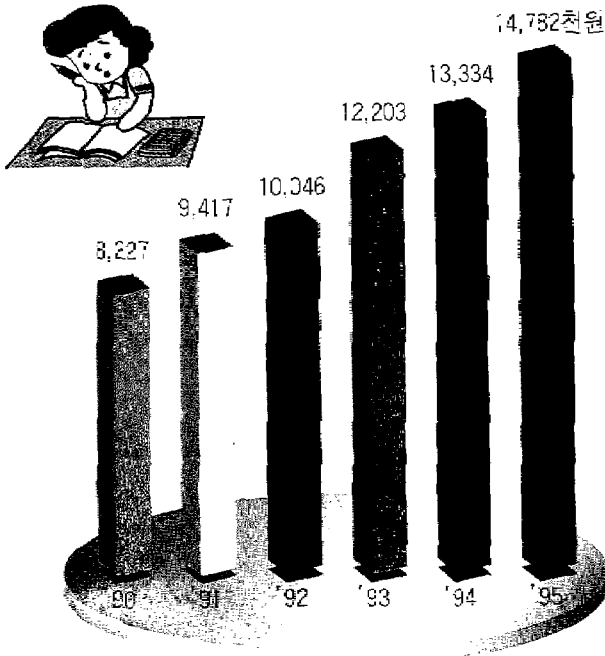
---

- 연도별 가계비
- 경지규모별 가계비
- 가계비 내역별 분포
- 가계집비 내역별 분포
- 연도별 음식물비
- 연도별 외식비
- 연도별 교제증여비
- 연도별 관혼상제비
- 연도별 교육비
- 연도별 보건의료비
- 연도별 농가 경제잉여
- 경지규모별 경제잉여
- 농가 자동차 보유
- 농가 컴퓨터 보유
- 농가 전자제품 보유(1)
- 농가 전자제품 보유(2)

## ■ 연도별 가계비

### 농가당 가계비 지출은 14,78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가 늘어나

우리나라 농가가 지난 일년 동안에 지출한 가계비는 총 14,782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0.9%가 늘어났습니다.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소득증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농가소득 21,803천원의 약 68%가 가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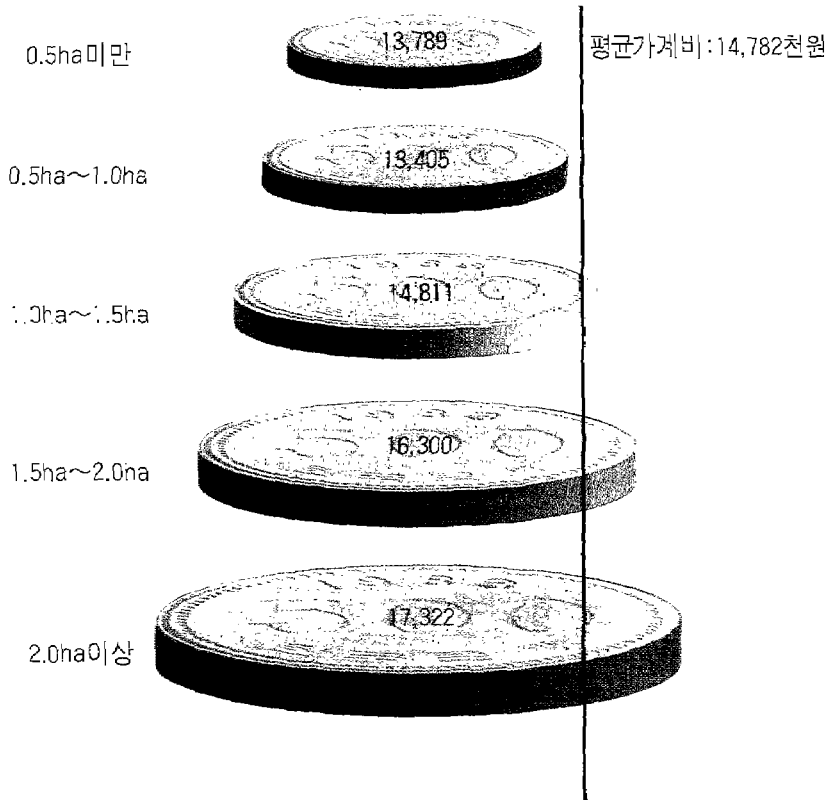


※가계비 :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소모적 비용으로 음식물비·주거비·광열수도비·피복비·교육교양오락비·가계잡비 등의 합계액. 현금지출외에 자가생산물자가 소비액, 지대·노임 등 현물수입의 가계지출 평가액,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함

## ■ 경지규모별 가계비

### 소득이 높은 대규모 경작농가에서 가계비 지출도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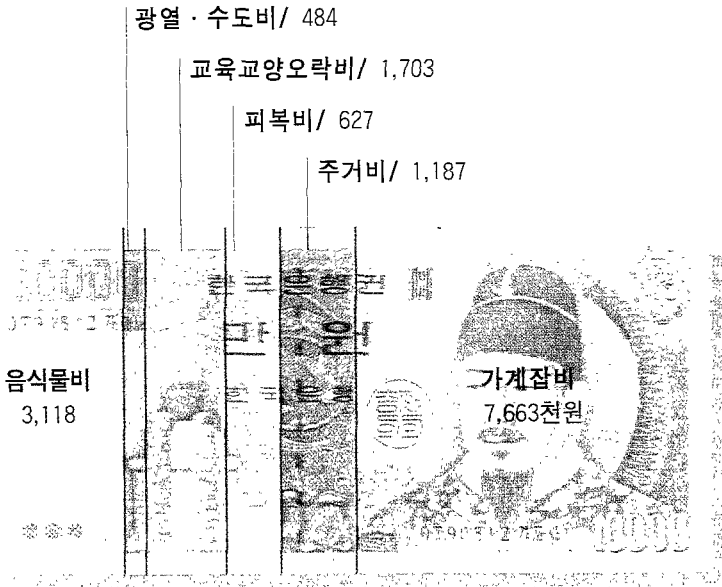
농가의 가계비 지출을 경지규모에 따라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은 대규모 경작농가에서 가계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작규모가 1.0ha~1.5ha인 농가에서 농가평균에 근접하는 14,811천원의 가계비 지출을 보인 반면, 2.0ha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7,322천원으로 농가 평균보다 17%나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가계비 내역별 분포

###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가계잡비, 음식물비, 교육교양오락비 순

지난해 농가에서 지출한 가계비 14,782천원중 교통·교제·의료 등 가계잡비로 지출된 비용이 7,663천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음식물비(3,118천원, 21.1%), 교육교양오락비(1,703천원, 11.5%), 주거비(1,187천원, 8%)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비 : 14,78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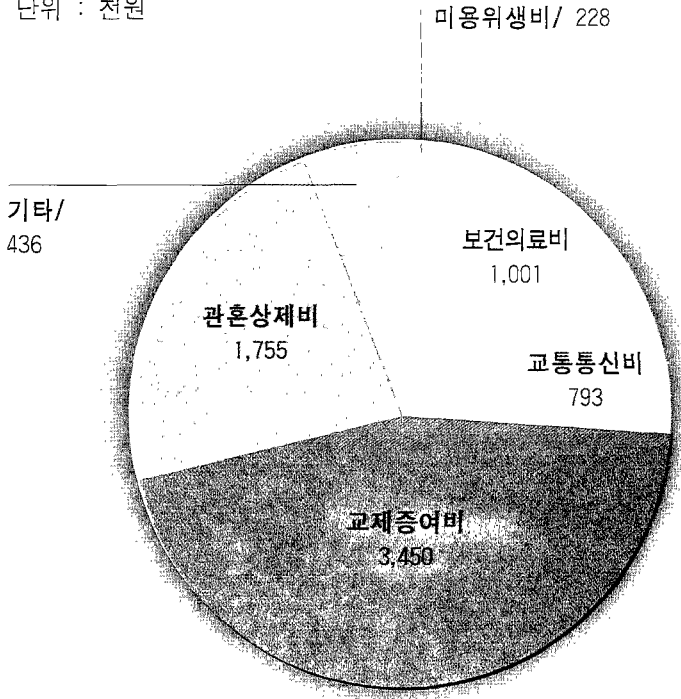


■ 가계잡비 내역별 분포

**가계잡비 중에서는 교제증여비, 관혼상제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지출이 많아**

'95년 한해동안 농가가 지출한 가계잡비 7,663천원 중에서는 교제증여비가 3,450천원(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관혼상제비(1,755천원, 23%), 보건의료비(1,001천원, 1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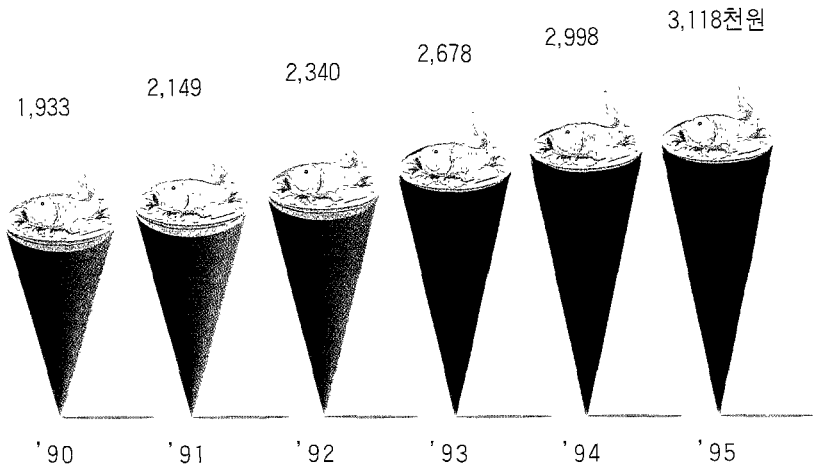


가계잡비 : 7.663천원

## ■ 연도별 음식물비

### 음식물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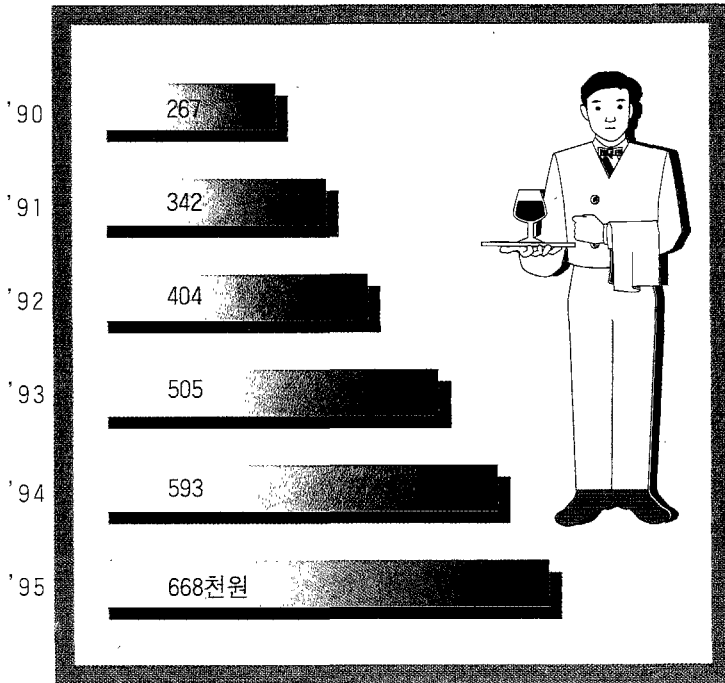
지난해 농가 가계비중 음식물비는 3,118천원으로 '94년에 비해 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비 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앵겔계수는 21.1%로 '94년의 22.5%에 비해 1.4%가 줄어들었습니다.



## ■ 연도별 외식비

### 농가당 외식비는 668천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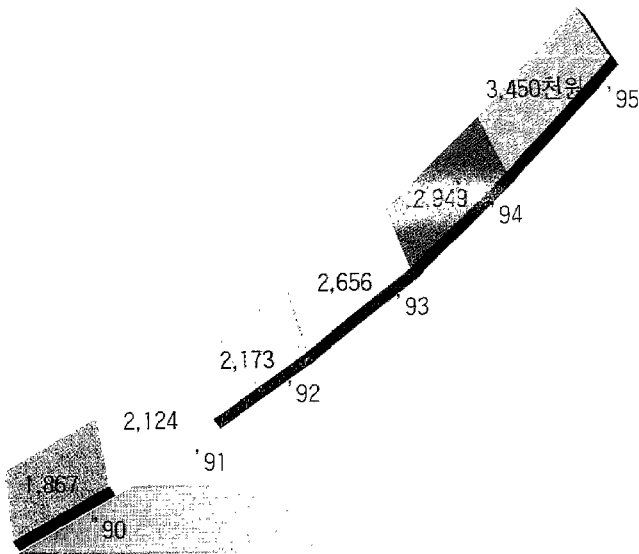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 농가 한 가구가 외식비로 지출한 비용은 668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2.6%가 늘어났으며, 5년전인 '90년도와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90년들어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이에따라 농가의 외식기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 연도별 교제증여비

### 농가당 교제증여비는 3,45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7%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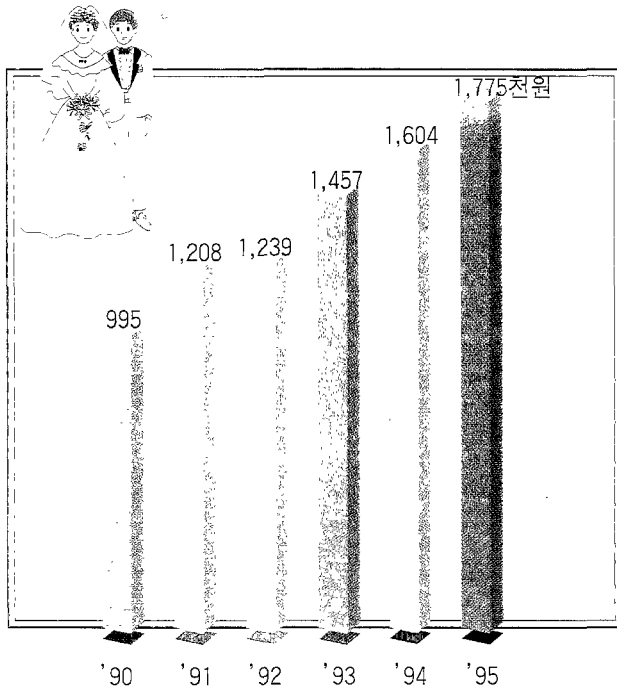
'95년도 우리나라 농가당 교제증여비는 3,45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7%가 늘었으며, '90년대들어 매년 10%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교제등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관혼상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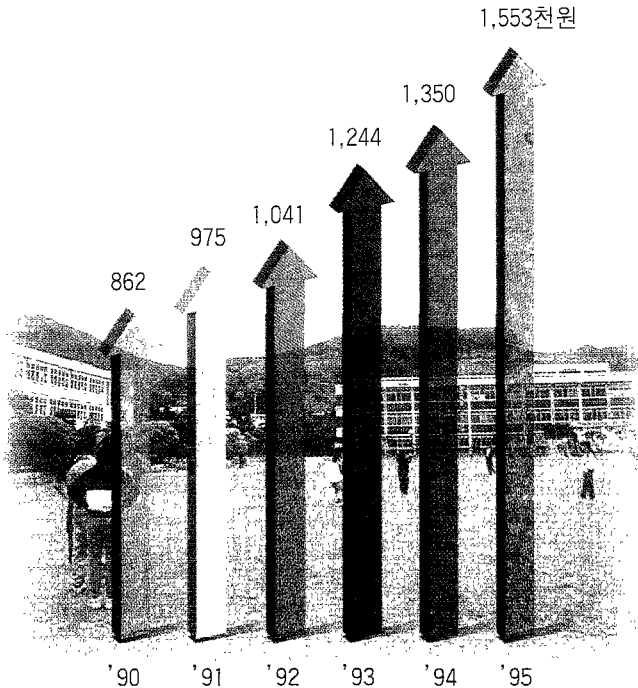
### 농가당 관혼상제비는 년평균 10%내외의 일정한 상승세를 보여

'95년도 우리나라 농가당 관혼상제비는 1,77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9.4%가 늘었으며, 매년 10% 내외의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비 중에서 관혼상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농가당 자녀교육비는 1,55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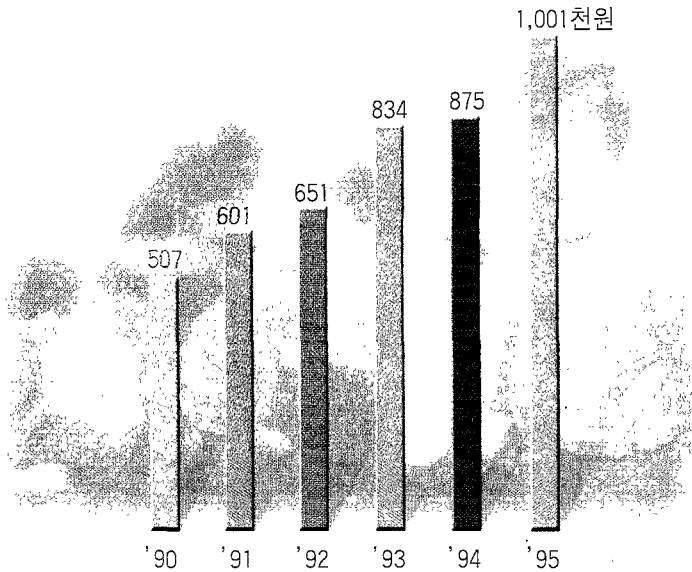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한 가구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553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5%가 늘어났습니다. '90년대 들어 농가교육비는 하숙비 및 등록금 인상 등에 따라 연평균 13%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보건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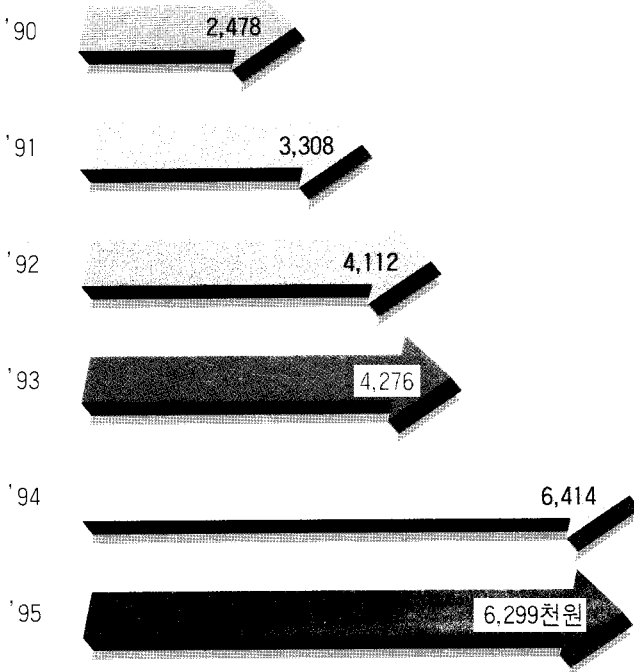
### 농가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1,00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4.4% 늘어나

'95년도 우리나라 농가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1,001천원으로 '94년의 875천원에 비해 14.4%가 늘어났습니다. 각종 의료시설의 확충에 따라 농촌에서도 진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농가 경제잉여는 6,299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15천원 줄어들어

지난 한해동안 농가가 농업생산활동과 농외소득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잉여는 6,299천원으로 '94년의 6,414천원에 비해 오히려 115천원(1.8%)이 줄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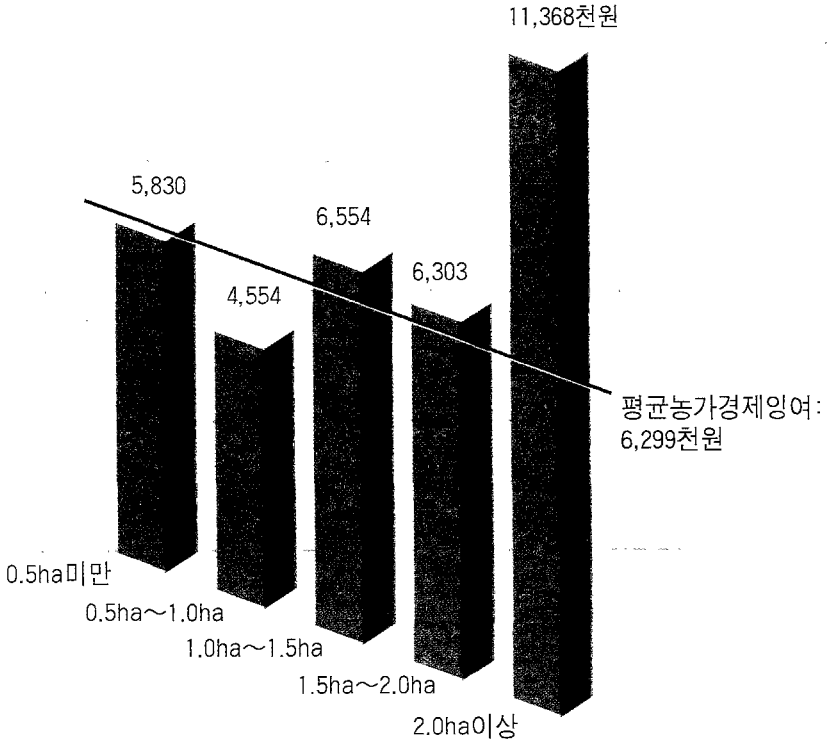
※ 농가경제잉여 :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비 및 분가지출비를 제한 것으로 일년동안 농업생산 활동과 농외소득활동을 통해 농가가 얻은 잉여를 말함. 플러스인 경우는 농가경제 흑자, 마이너스인 경우는 농가경제 적자를 의미함.



## ■ 경지규모별 경제잉여

### 2ha 이상의 대규모 경작농가는 농가평균보다 80%나 많은 경제잉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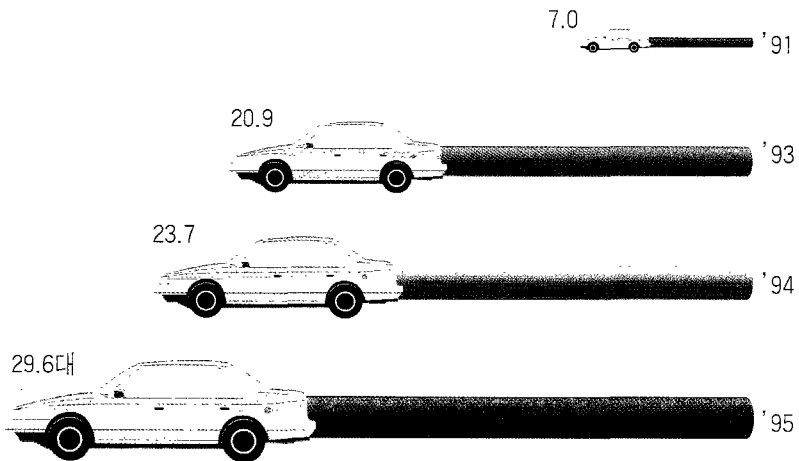
농가의 경제잉여를 경지규모에 따라 비교해보면 1ha~2ha의 농가가 전체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2ha 이상의 농가는 11,368천원으로 전체평균보다 80%나 많은 경제잉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 농가 자동차 보유

### 3.4농가당 1대꼴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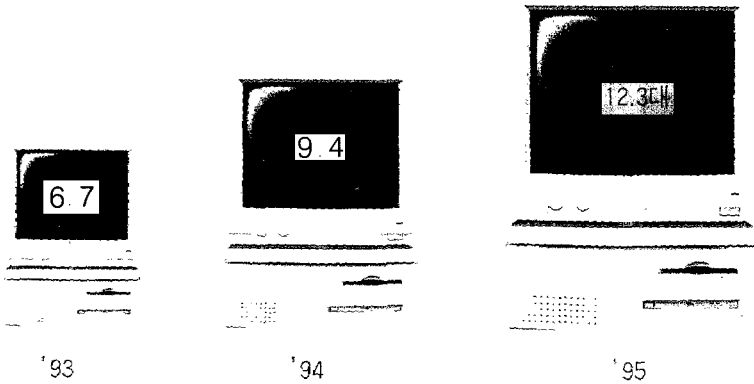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가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합쳐 100농가당 29.6대, 즉 3.4농가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4년에 비해서는 25%, 4년전인 '91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농촌에서도 자동차 홍수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농가 컴퓨터 보유

### 농가의 컴퓨터 보급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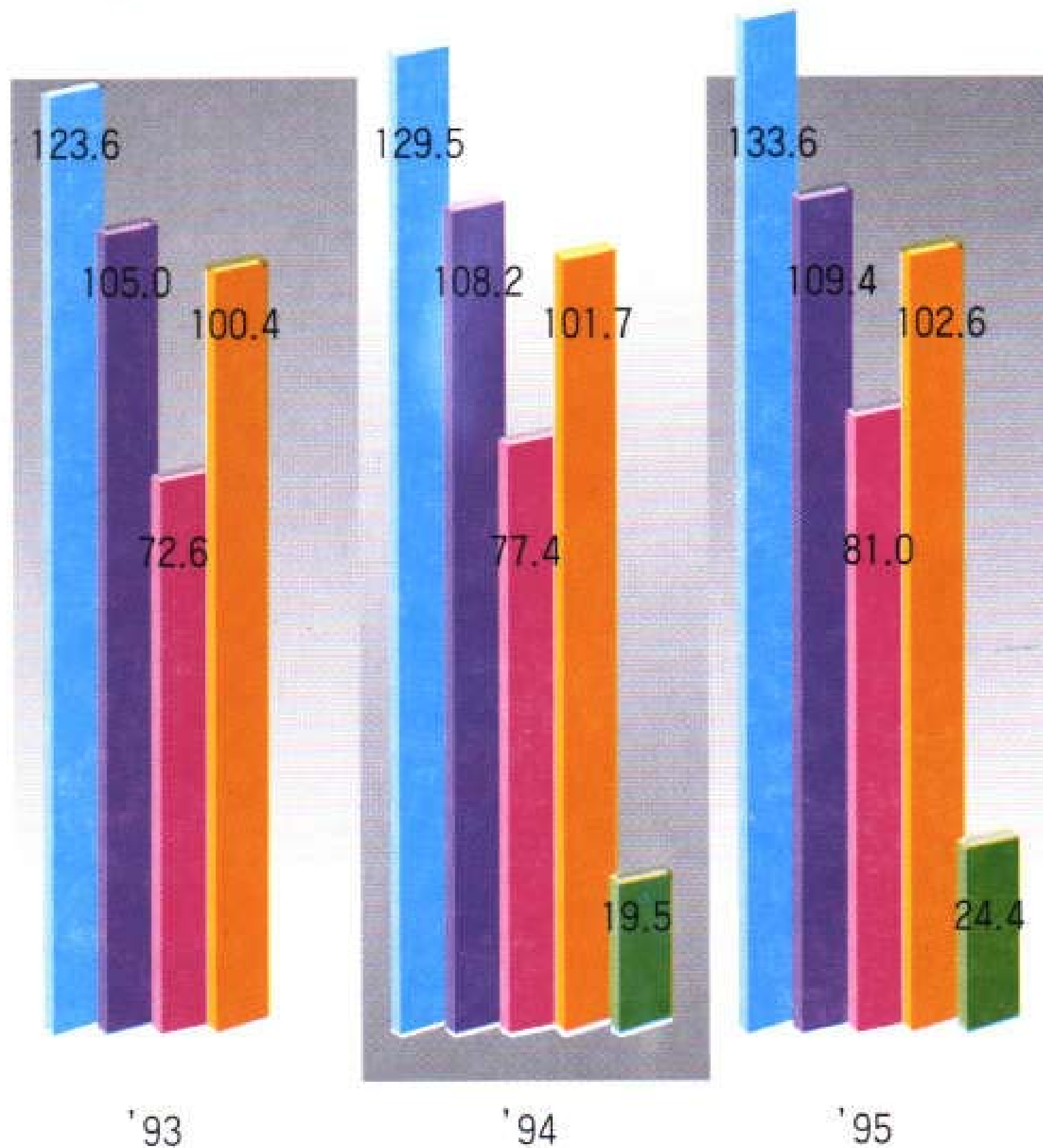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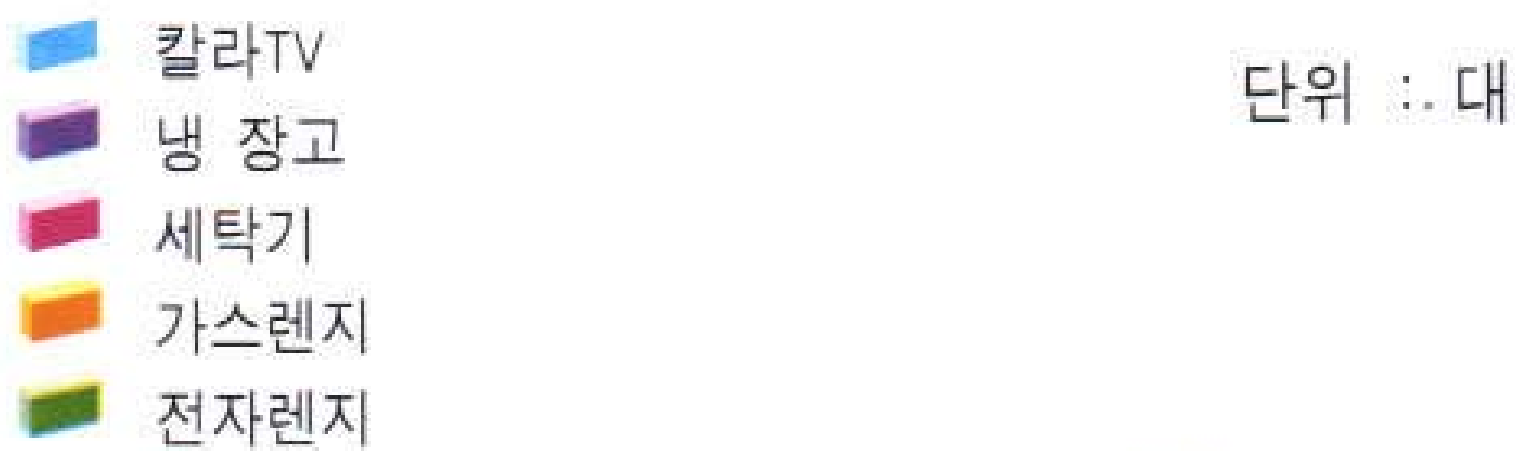
현대문명의 총아로 불리고 있는 컴퓨터도 농촌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컴퓨터 보유율은 100농가당 12.3대로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93년에 비해 2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 농가 전자제품 보유

### 컬러TV, 냉장고, 전화등 기본 전자제품은 농가마다 1대이상씩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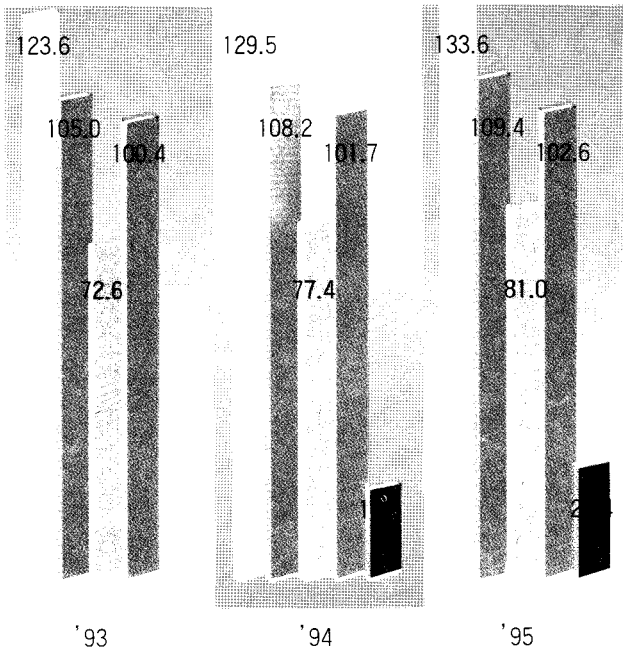
컬러TV, 냉장고, 가스렌지, 전화 등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각종 전자제품은 농가마다 1대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렌지, VTR,



## ■ 농가 전자제품 보유

### 칼라TV, 냉장고, 전화등 기본 전자제품은 농가마다 1대이상씩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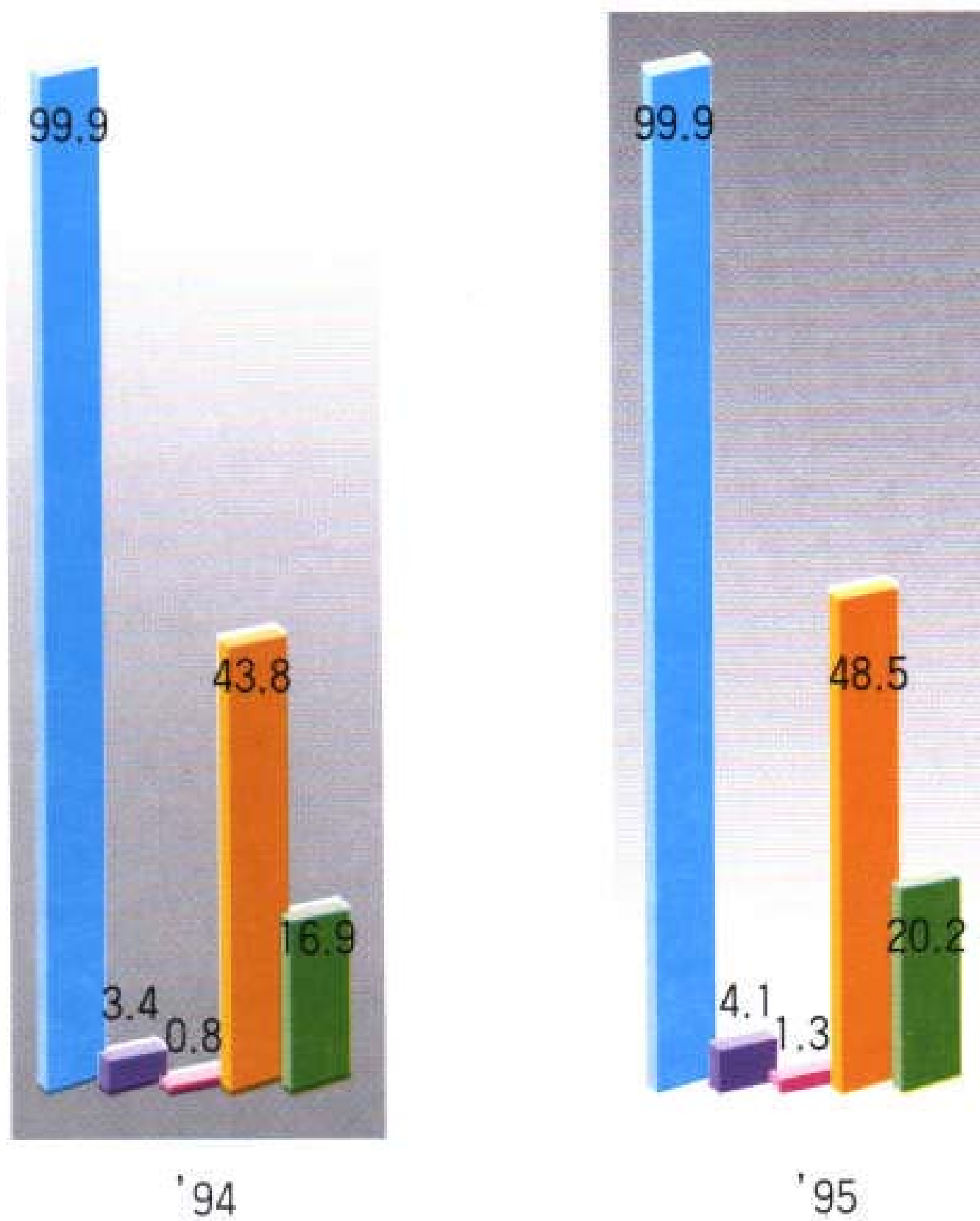
칼라TV, 냉장고, 가스렌지, 전화 등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각종 전자제품은 농가마다 1대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렌지, V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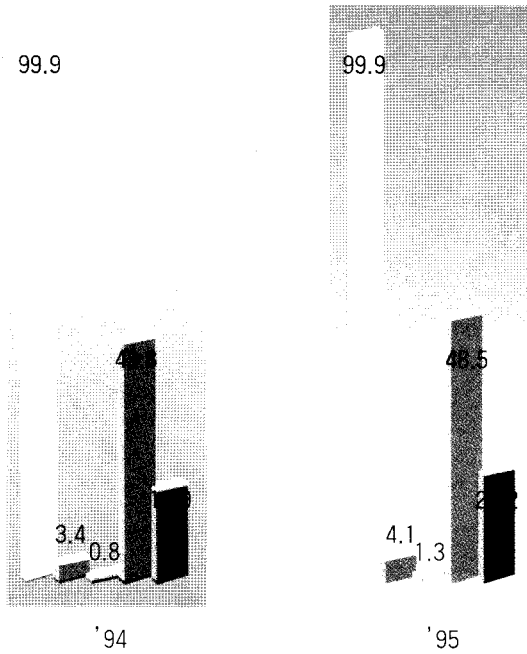
전기청소기등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는 전자제품도 농가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 전 화
- 피아노(풍금)
- 에어컨
- 비디오
- 전기청소기

단위 : 대



전기청소기등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는 전자제품도 농가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 백



## IV. 농가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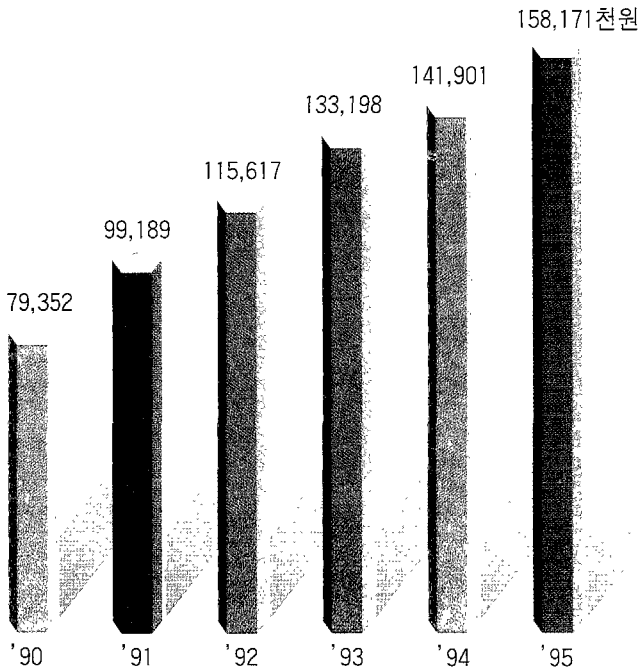
---

- 연도별 농가자산
- 경지규모별 농가자산
- 농가자산 내역별 분포
- 연도별 고정자산
- 고정자산 내역별 분포
- 연도별 유동자산
- 연도별 유통자산
- 유통자산 내역별 분포
- 연도별 예·저금 현황

## ■ 연도별 농가자산

### 지난해 농가당 총자산은 '90년에 비해 2배가 넘게 늘어나

지난해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158,171천원으로 '94년에 비해서는 11.5%, 5년전인 '90년도에 비해서는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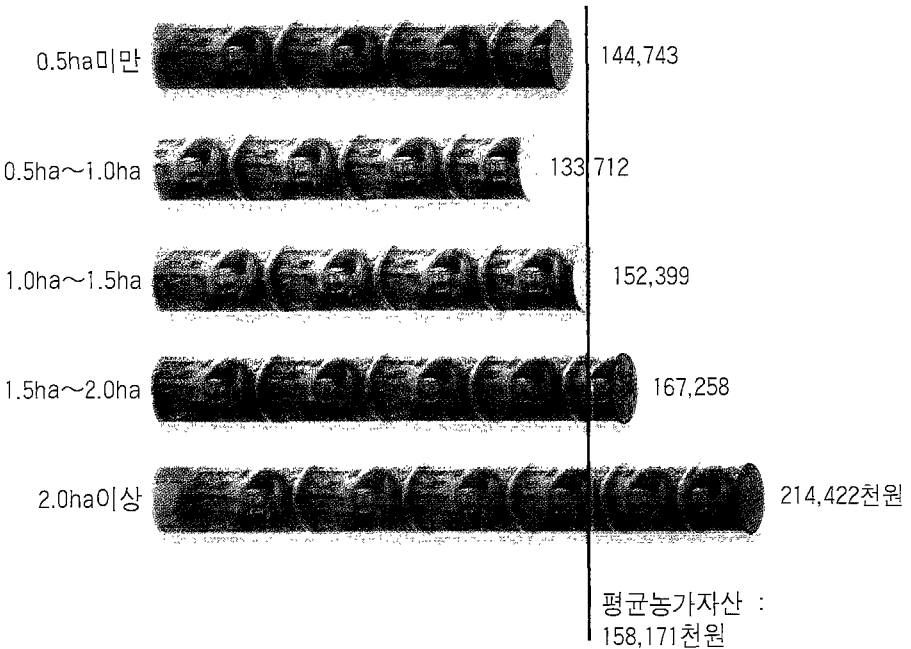


※ 농가자산 : 농업경영의 용역편익을 제공하고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농가소유 일체의 경제적인 자원을 말함.

## ■ 경지규모별 농가자산

### 농가자산은 토지와 직결되므로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가자산도 많아

농가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농지)인 만큼 농가자산은 경지 규모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자산은 경지규모가 약 1.5ha인 농가에서 평균을 이루고 있으며 경지규모가 2ha이상인 농가는 214,422천원으로 농가평균자산보다 3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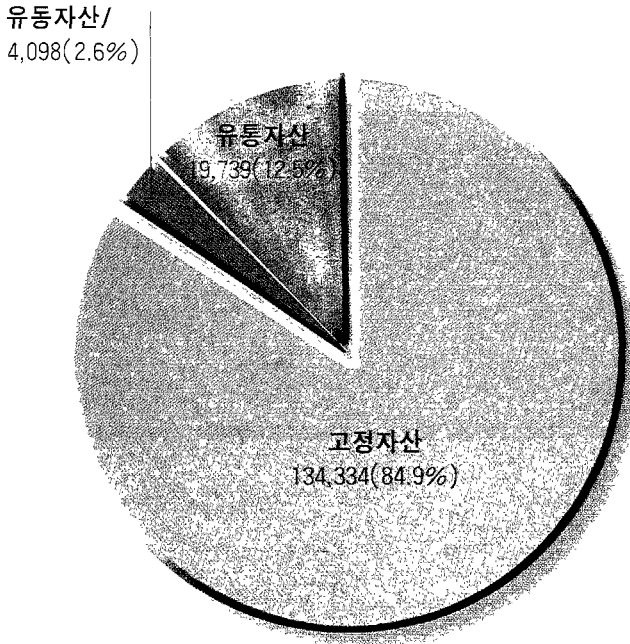


## ■ 농가자산 내역별 분포

### 농가총자산의 84.9%인 134,334천원이 토지 건물 등의 고정 자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토지·건물 등의 고정자산이 총자산의 84.9%인 134,33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자산이 12.5%인 19,739천원, 나머지 2.6% (4,098천원)가 유동자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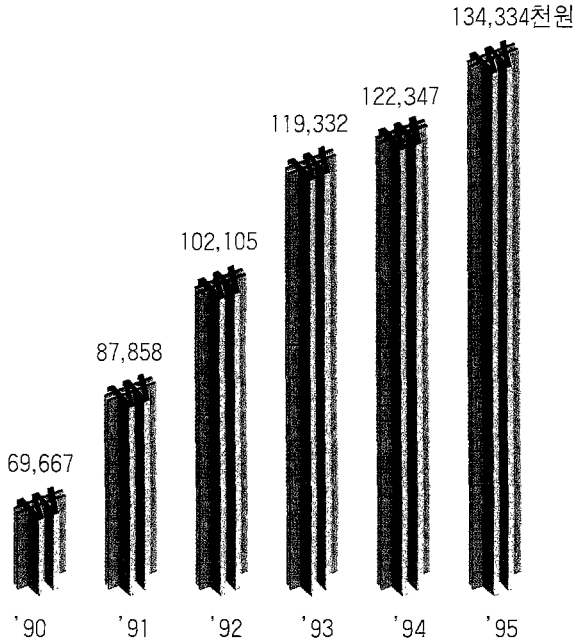


농가자산 : 158,171천원

## ■ 연도별 고정자산

### 건물 토지등 고정자산은 134,334천원으로 '94년에 비해 9.8%가 늘어나

농기자산중 건물·토지 등의 고정자산은 지가상승 등에 힘입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정자산은 134,334천원으로 '94년에 비해서는 9.8%, 5년전인 '90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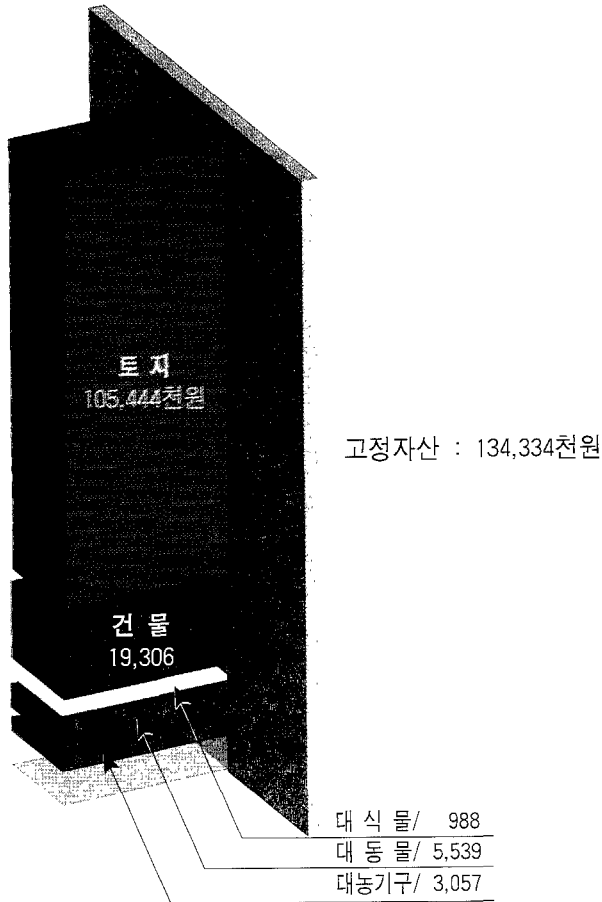


※ 고정자산 : 1회 사용으로 그 가치 전부가 소모되지 않고 용역편익을 수년에 걸쳐 제공하는 자산.

## ■ 고정자산 내역별 분포

### 고정자산의 78.5%가 토지, 14.5%가 건물인 것으로 집계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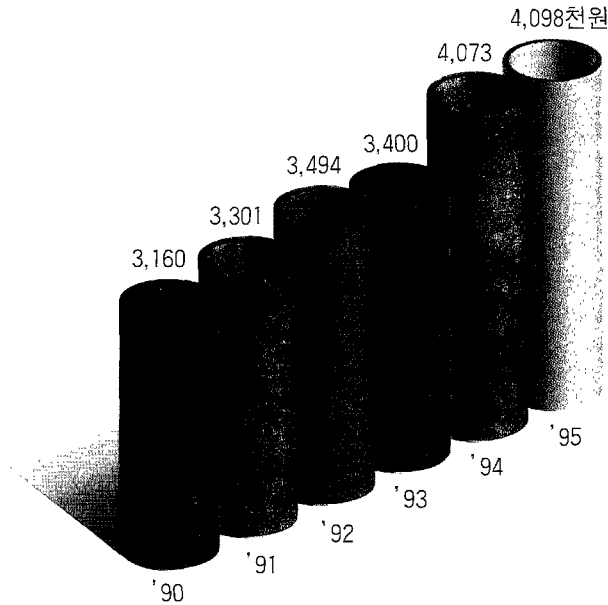
고정자산 중에서는 농지 등 토지가 105,444천원으로 고정자산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물이 19,306천원으로 14.4%, 한우·젖소 등 대동물이 5,539천원으로 4.1%, 대농기구가 3,057천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유동자산

### 지난해 농가의 유동자산은 4,098천원으로 '94년과 거의 같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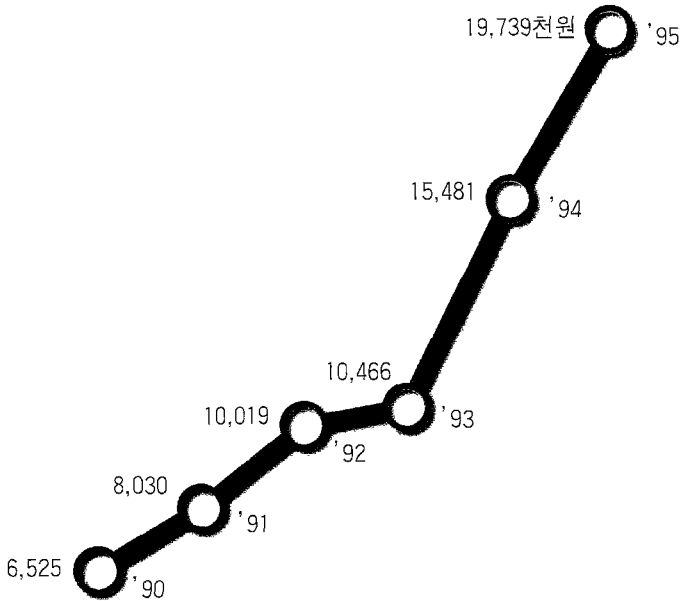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당 유동자산은 4,098천원으로 '94년도의 4,073천원과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5년전인 '90년도와 비교해도 약 30% 증가에 그쳐 고정자산의 지속적 상승과는 대조적으로 유동자산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유동자산 : 재고농산물 등 처분이 용이하여 유동성이 높으며, 그의 용역편익 제공이 보통 1회에 한하는 자산

## 현금, 예금·저금 등 농가의 유통자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당 유통자산은 19,739천원으로 '94년도의 15,481천원에 비해 27.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5년전인 '90년도와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농가의 유통자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통자산 :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자산을 구입할 수 있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저금, 대부금, 보험금, 유가증권, 계, 미수입금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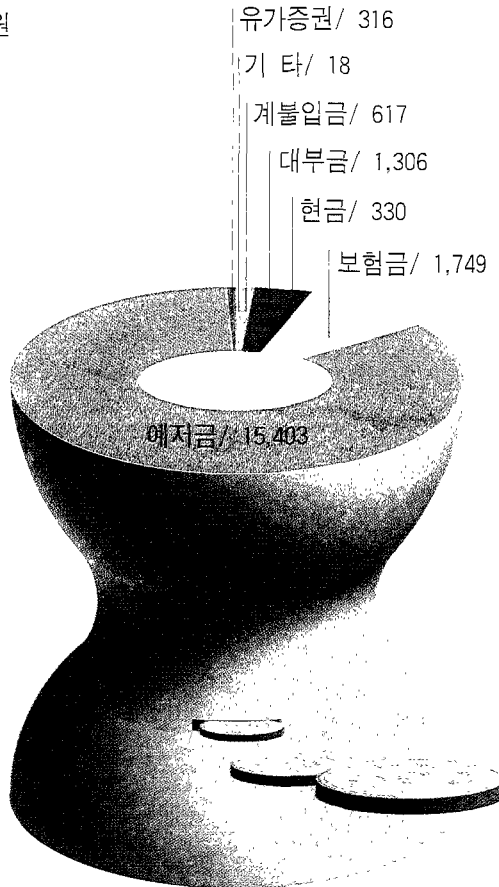


## ■ 유통자산 내역별 분포

### 유통자산 중에서는 예·저금이 15,403천원으로 78%를 차지

유통자산 중에서는 예·저금이 15,403천원으로 유통자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금이 1,749천원, 대부금이 1,306천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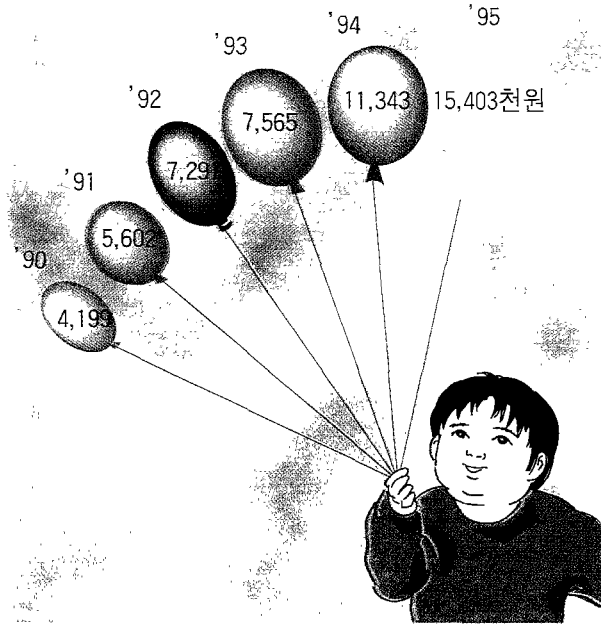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유통자산 : 19,739천원

## 농가의 예·저금액은 '9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가의 예·저금액은 지난 '93년까지는 비교적 소폭의 증가에 그쳤으나 '94년에는 전년대비 50%, '95년에는 전년대비 3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V. 농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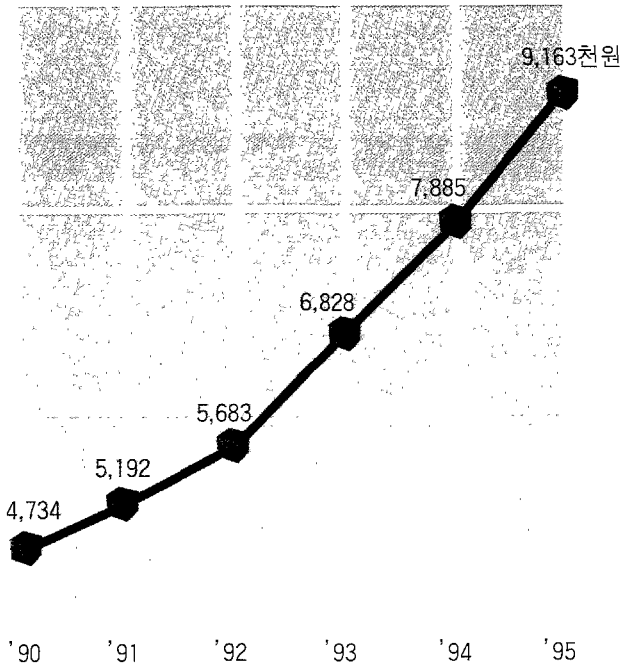
---

- 연도별 농가부채
- 차입처별 농가부채
- 경지규모별 부채 현황
-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 농가부채 용도별 분포
- 생산성부채 용도별 분포
- 가계성부채 용도별 분포

## ■ 연도별 농가부채

### 농가당 부채규모는 9,163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6%가 늘어나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당 부채는 9,163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6%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 정부의 정책사업이 활발해지고 이에따라 각종 정책자금의 농어촌에 확대 투자되면서 농가의 부채규모도 연평균 1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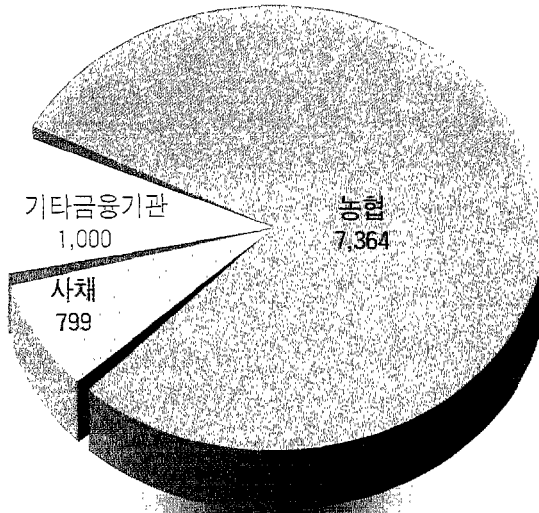
※ 농가부채 : 농가가 타인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로서 각종의 채무·미불금 등의 현금·현물을 말하며, 차입금·외상매입금·미리 타고 불입하지 않은 것돈 등을 의미함

## ■ 차입처별 농가부채

### 농가당부채 9,163천원의 80%인 7,364천원이 농협을 통해 이루어져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분류해보면 농가당부채 9,163천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364천원을 농협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협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1,000천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채는 799천원으로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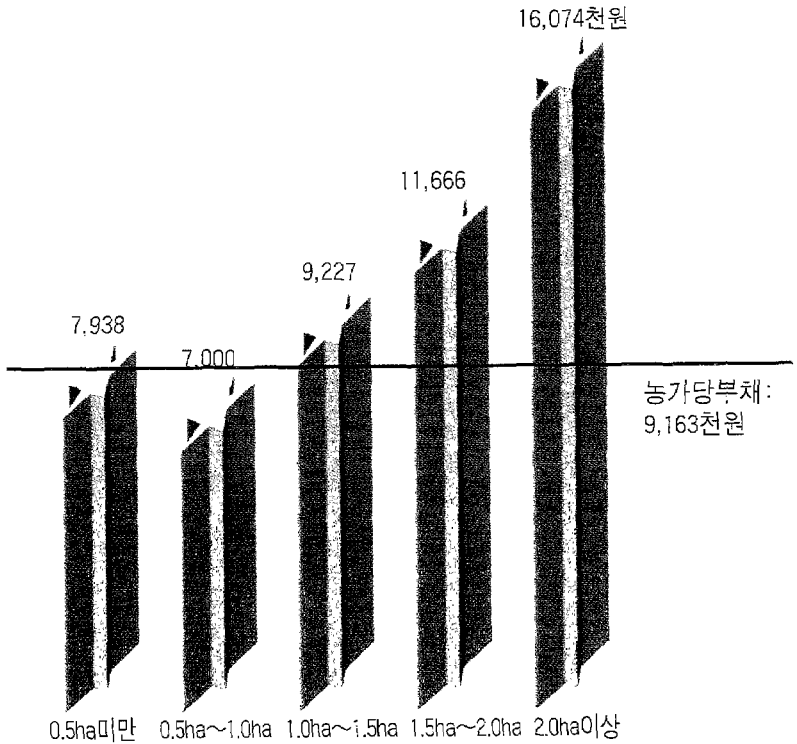


농가당부채 : 9,163천원

## ■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 경지를 많이 가진 농가일수록 부채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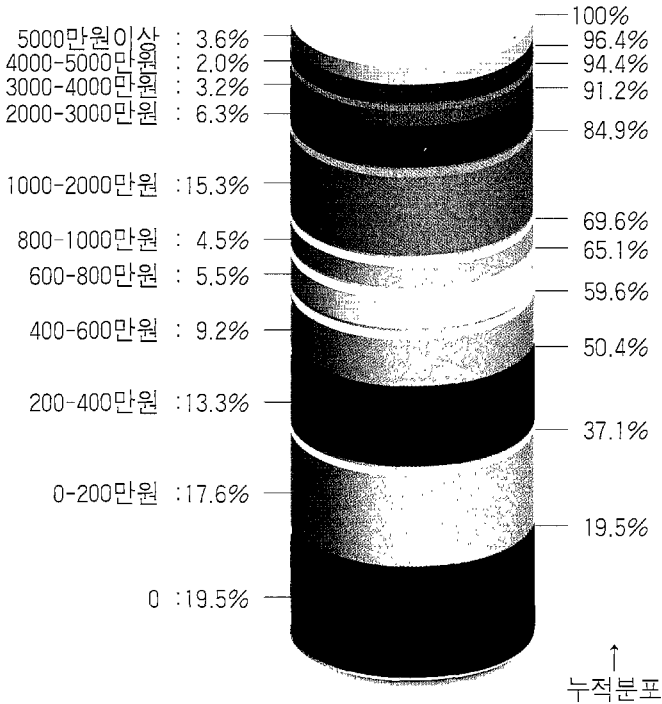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부채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지규모가 1ha미만인 농가의 부채규모는 7,000천원 수준인데 비해 2ha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6,000천원 수준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 부채없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19.5%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중 부채가 하나도 없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약 19.5%로 조사되었으며, 약 3.6%의 농가가 5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체농가의 70%가 부채가 없거나 1천만원 이하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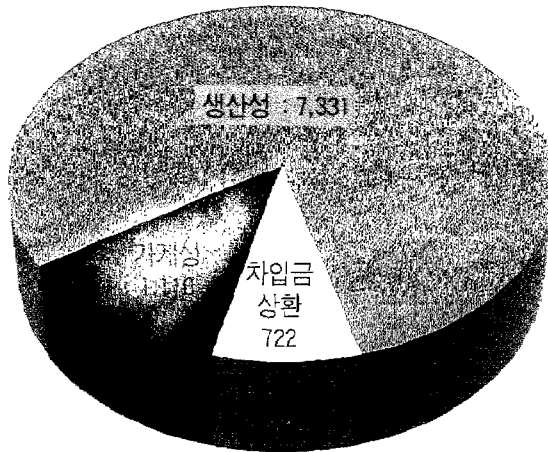


## ■ 농가부채 용도별 분포

### 농가당부채의 80%인 7,331천원이 생산성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

지난해 농가당부채 9,163천원의 80%인 7,331천원이 농자재구입 등 농업 생산성 확대를 위한 갖가지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농가부채의 12.1%인 1,113천원이 교육비 등 가계성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도 722천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농가당부채 : 9,16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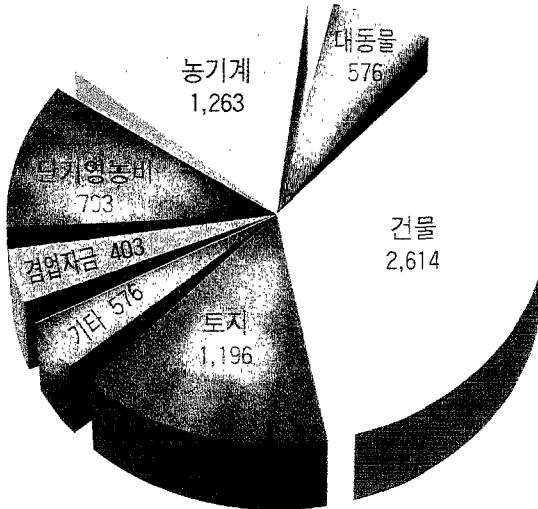


## ■ 생산성부채 용도별 분포

### 건물·농기계·토지 등에 생산성부채의 70%가 사용되어

지난해 생산성 확대를 위해 사용된 부채중 건물구입및 개량 등에 생산성부채의 약 36%인 2,614천원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이 농기계구입 1,263천원(17%), 토지구입 1,196천원 (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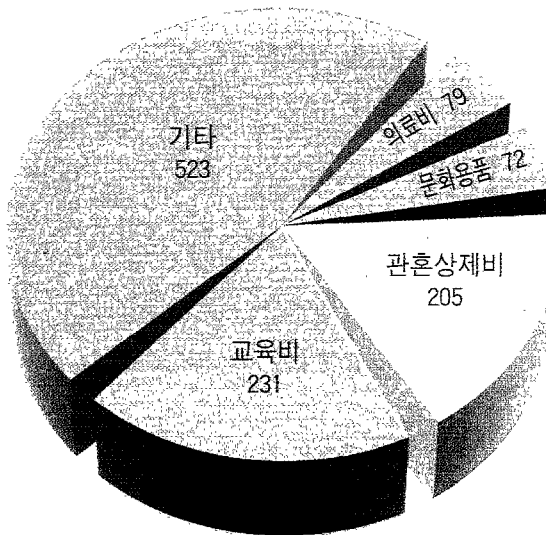
생산성부채 : 7,331천원

## 가계성부채 용도별 분포

### 가계성부채 중에서는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아

지난해 농가가 가계성 지출 목적으로 대출받은 1,110천원중 관혼상제비나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43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용품 구입이나 의료비로도 15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가계성부채 : 1,110천원